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풀리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COPYRIGHT 2026

MEDIA CENTRAL NEWS

제 60013호

Wednesday, June 17 2026 A

중동 위기 넘긴 G7, 우크라전 종식 대러 압박 강화

트럼프 "러, 종전 합의해야"
러 석유 제재 재개 가능성 언급

미-러간 종전 합의로 한숨 돌린 서방이 장기 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은 16일(현지시간) 오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쟁 종식을 위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실무 회담의 결과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대신 회담 후 한 프랑스 외교 소식통은 AFP에 "정상들은 오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도자들은 또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흐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압박 강화 기류는 앞서 러



2026년 6월 15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

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합의를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엄

청난 인명 피해를 봤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발 국제 에너지 위기로 일시 해제했던 러시아

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당연히 미국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유예했다. 이제 석유가 넘쳐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곧 그렇게(제재 재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또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그가 매우 협조적이었고 매우 주의깊게 경청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미국과 유럽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낙관론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전환이 호전된 지금, 그동안 러시아에 유리한 입장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대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길 기대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용감하게 전선을 지켰고 러시아의 피로감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지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할 때"라고 적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공 자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날 실무 회담에 앞서 성명에서 "G7 동맹국과 협력해 러시아의 전쟁 기계가 중단되고 우리 대륙에 평화가 돌아올 때까지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G7 정상들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향해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 관계기사 2면

페어팩스 DACA 수혜자들 '갱신 지연' 불안감 고조

한인 A씨 답답함 하소연
워킨쇼 의원, 해결책 모색

다음 달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날,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사는 한인 남성 A씨는 아메리칸 드림이 끝나는 것을 목격할지도 몰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인 이민자이면서 의료 전문가인 A씨는 아동기 이민자 추방 유예법(DACA)에 따라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그동안 정기적으로 갱신해왔다. DACA

는 젊은 이민자들에게 추방 절차 면제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연방 정책이다.

A씨는 처리 지연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공식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고를 신경쓰지 않고, 늘 그랬듯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권장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갱신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페어팩스에 사는 A씨는 아직 DACA 연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만약 연방 정부가 7월4일까지

그의 DACA 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그는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루 하루 답답함이 밀려온 그는 15일 제임스 워킨쇼 버지니아 연방 하원 의원(제11지구)을 방문하여 DACA의 미래와 50만 명이 넘는 '드리머'들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원탁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ACA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처음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체포 및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16세 이하일 때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고, 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미국에

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웹사이트에서 DACA 신청의 대부분이 120일 이내에 심사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120일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워킨쇼 의원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오는 11월 선거에서 이 문제를 투표로, 그리고 내년 1월 연방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김성환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환원지킴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 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트럼프 “이란, 핵무기 확보하려 하면 지옥 같은 재앙 닥칠 것”

“이란 합의안, 의회 제출해 검토 요청...곧 합의문 전문 공개”
“이스라엘, 레바논 문제에 더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미국, 우크라이에 집중...분쟁 해결위해 최선”



16일 오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논의하는 트럼프, 마크롱, 젤렌스키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타미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와 회동과, 언론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자신이 협정에서 명하는 조건 중 하나였음을 상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를 위반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경우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갔다”며 “내 생각엔 2단계가 사실 더 쉬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번 양해각서 합의 이후 “우리는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란은 이제 합리적인 지도부를 갖겠다”고 평가하며 이란 정권의 전복을 원치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란의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협정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강경우파 진영에서 이번 종전 합의안이 ‘항복’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훌륭한 문서”라고 반박하며 “합의안을 의회에 보내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 보낼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 없지만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의회에 보내달라”고 했다.

또 며칠 내로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언론이 이를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분에게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최근 레바논 공습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히

며 “그가 이제 레바논 문제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웃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처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불화설에 대해선 “(사이가) 아주 좋다”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도자 간 적대감이 심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면서 이로 인해 자신이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로 생각했던 분쟁의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봤다”며 “러시아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그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항으로 석유 공급이 재개돼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산 석유를 다시 제재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별도 회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실무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종전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중동 재건 건설적 역할하겠다”...미국의 참여 요청은 아직

“미, 핵 합의 대가로 3천억달러 투자기금 추진...한국기업도 관심”
한국기업 이란 재건 참여 주목...정부, 여건 조성되면 참여 지원할듯

미국이 이란에 핵 합의 대가로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향후 한국 기업들이 이란 재건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 주목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 재건기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재건기금과 관련해서는 미-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미-이란 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이란 간의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

져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3천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조성을 허용할 준비가 됐다고 한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논의 내용을 브리핑받은 한 관계자는 FT에 이 기금은 정부가 자금을 대는 게 아니라 이란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하고서는 “유럽의 많은 기업,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많은 기업은 물론이며 미국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구조와 관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보도를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란 재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안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재건을 위한 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걸프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미국과 이란의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기금 조성 주체를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로 확대하려고 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미국 공습으로 파손된 이란의 교량

어렵다는 분위기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15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걸프국가들이 자금을 대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기류다.

이란 정부도 이란과 오랜 경제협력 경험이 있는 한국의 재건 사업 참여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

려졌으며, 이란 부분은 정부가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최대한 관리하려고 한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란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기업들이 이란에서 사업하려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가 우선돼야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합의 이행 진도에 따라 제재 완화 등의 반대급부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3천억달러 기금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이란이 처신을 잘하고, 제재 완화가 이뤄지고, 이란이 세계 경제로 통합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 이란에 투자하라고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날씨 (°F)

18일(목)	94-69	21일(일)	87-64
19일(금)	83-63	22일(월)	85-66
20일(토)	85-61	23일(화)	84-64

6월 17일(수) 88-69

“새로운 시작”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센터빌 중앙상호교회 근처 5 에이커 전원주택 \$1,050,000

레스턴 싱글홈 셀러 클레이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현역 럭셔리 타운홈 \$850,000

세금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오너분들을 위한 똑똑한 절세”

지금은 절세가 곧 생존이고 경쟁력입니다.

[은퇴 후 소득에 대한 미리하는 세금플랜, Mega Backdoor 등 Roth Conversion 을 이용한 절세 전략!]

왜 이 플랜이 필요할까요?
개인 401(K) 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
사업주에게 조기 은퇴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세금 공제와 은퇴 준비를 한 번에!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직원이 없는 부부 자영업자: Solo 401(K)로 세금 공제 + 은퇴 플랜을 동시에!
고소득 전문직 오너 (직원 10 ~ 15명 이하): 큰 세금 혜택 + 은퇴 플랜 마련!

UNIFinancial worldwide Marketing

로리 문 Cell. 703.895.7648
Office. 703-865-8788
send2lorimoon@gmail.com

재정 플랜 전문가 & 연방 세무사

위선의 진보 권력, 민주주의의 광장을 겁박하다

SPECIAL STORY

국가란 무엇이며,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시스템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시스템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을 때 권력이 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 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징후는 그 이후에 터져 나왔다. 권력을 쥔 이른바 '진보 여당'이 잠실 광장에 모인 청년들의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우리는 연출된 정의의 파산을 목도하고 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잠실 시위대를 향해 지시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까지 엄중 수사"라는 메시지는 현 집권 세력이 가진 지독한 인지부조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보수 정권의 실정이나 철차적 정당성 훼손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의 자발적 저항권"과 "직접민주주의의 분출"을 예찬하며 권력의 턱밑까지 쫓붙을 들이밀던 이들이 바로 지금의 여당이다. 자신들이 광장 밖 체제에 있을 때 광장은 '성스러운 민의 수렴처'였으나, 자신들이 체제 내 권력이 되자 광장은 '통제되어야 할 불온한 공간'으로 격하된다.

현 정부와 경찰이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및 체육단체의 업무방해 행위를 부각하는 속내는 자명하다. '선거 행정의 대참사'라는 국가적 시스템의 무능을 '시민 대 시민의 미시적 갈등'으로 치환하려는 프레임 전환이다. 구조적 모순을 은폐한 체 시위대를 이기적인 민폐 집단으로 고립시켜 대중적 혐오를 유도하려는 알뜰한 정치공학계산이 그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잠실 광장에서



1 16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왼쪽)가 국회 대표단을 수행하던 보좌진(가운데)의 촬영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목을 조르려는 난동을 벌였다"며 영상을 게시했다. 2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방송라이브 취재진 등의 진입과 관련해 진입 불가한 상황을 알리고 있다.



목도한 장면은 이러한 권력의 기획이 현장의 굳건한 실존 앞에 어떻게 과열음을 내며 무너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야당의 중재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핸드볼경기장 진입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현장의 기류는 바뀐 것은 거대한 조직적 스크림이 아니었다. 입구를 가로막고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며 온몸으로 저항한 단 한 명의 여성 시위자였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공권력의 압박이 교차하는 광장에서, 정당한 주권 회복을 열망하는 단 한 사람의 단호한 거부권이 체육회와 경찰의 발길을 돌려세운 것이다.

체육계를 방패막이 삼아 광장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려던 정권의 기획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권을 도둑맞은 한 시민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실존적인 저항 앞에서 그 연출된 동력을 상실했다. 박정호 서울경찰청장의 "옆에서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공갈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 최고 권력자의 '엄중 수사' 가이드라인이 하달되자마자, 공권력은 법치주의

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팽개친 채 폭주하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단의 항의방문 현장은 현 집권 세력이 가진 공포와 이성 상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단면이다.

경찰청장의 망언에 항의하고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눈앞에서 참담한 풍경이 연출됐다.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신동욱 의원실 보좌진을 향해 돌진한 것은, 다름 아닌 서울경찰청의 이관형 경비부장이었다.

경비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직접 야당 보좌진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팔목을 비틀는 폭력적 제지를 감행한 것이다. "불법 체증"이라는 급조된 명분은 입법부의 정당한 의정 활동과 감시 권한을 힘으로 누르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했다.

국민의 대표를 보좌하는 신분마저 고위 경찰 간부의 물리적 폭력 앞에 짓밟히는 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체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읽어낸

다. 합법적인 공간에서 야당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정권이, 저 차가운 잠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청년들에게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겠는가. 진보된 국가의 공권력이라 부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궤멸이다.

통계데이터가 증명하듯, 이번 잠실 집회의 핵심 주축은 기성 이념 틀로 재단되지 않는 2030 세대(30대 25.3%로 최다, 청년층 비율 50% 이상)이다. 이들은 진영 논리에 매몰된 세대가 아니다. '내 표의 행방'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 주말의 안락함을 반납하고 텐트를 친 청년들이다. 청년 세대의 절박한 공정 감각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답이 사법적 멸문지화를 암시하는 '패가망신'의 협박과, 야당 보좌진을 짓밟는 '물리적 폭력'이라는 점은 깊은 비극이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통치자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경찰은 광장의 소음을 물리적으로 소거하는 것을 넘어 입법부의 권위마저 진흙탕에 처박고 있다.

경찰의 폭력성이 극에 달하고 정부

의 귀가 닫힌 지금, 앞으로의 전개 상황은 암담하기만 하다. 대화와 수습의 정치는 실종되었고, 오직 서슬 퍼런 사법 처리와 물리적 충돌의 검은 구름만 잠실 광장을 뒤덮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광장은 권력이 청소하려 할 때마다 더욱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 목 놓아 외쳤던 "광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경구가 왜 자신들이 집권한 현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청년들의 자발적 항거를 힘과 공포로 억누르려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더 거대한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광장을 사유화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압박하는 진보 여당의 위선적 행태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가장 격렬하게 거꾸로 돌리고 있는 실체적 위협이다. 권력은 유한하며, 청년들이 던진 "내 표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은 공권력의 힘으로 결코 지울 수 없다. 권력이 광장을 클렌징하려 할 때마다 민주주의의 시계는 도리어 가장 격렬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다.

김정민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피스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구독신청
703-281-9660
MEDIA CENTRAL NEWS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CARE SERVICE

Always With You!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뢰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복잡한 롱텀케어 신청 도와 드립니다.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TEL: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FAX: 571.789.2234

Hyunshomecare@gmail.com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www.hyunshcs.com

워싱턴 DC 풍경을 확 바꿀 '5대 주요 프로젝트'

250주년 기념사업 일환 백악관 연회장·개선문 등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경관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서 깊은 랜드마크들을 개조 또는 건설하고 있는 다섯 가지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스트 윙 볼룸]

2025년 7월 31일 백악관은 동관을 2억 달러 규모로 확장된 좌석식 연회장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연회장 규모는 200명에서 650명리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의 수용 인원과 비용은 1000명 총 4억 달러로 증가했다. 추진하는데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이 2028년까지 개장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개선문 조감도

[미술위원회/해리스 디자인 제공]

[반사 연못]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을 '미국 국기 색깔인 파란색'으로 칠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가 2012년 재건

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누수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약 한달 반 동안 142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어 공사는 완료되었다. 6월 4일부터 반사 연못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평화의 조각상 예술]

링컨 기념관 원형 교차로의 알링턴 기념 다리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청동 조각상인 '평화의 예술'이 보수되고 23.74 캐럿 금박으로 덮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립공원관리청이 메릴랜드의 한 금박 공방에 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4월에 시작되었다. 조각상들은 현재 비게로 가려져 있으며, 7월 4일 마감 일 전에 완성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개선문]

이미 일부 변화가 눈에 띄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야심찬 계획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기념교의 링컨 기념관 맞은편 메모리얼 서클에 상당히 높은 '개선문'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유의 여신상이 꼭대기에 세워질 이 개선문은 3D 렌

더링으로 재현하여 전망대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된다. 국가수도 계획 위원회는 내부부에 아치가 항공 항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건설로 인한 교통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영웅들이 국립 정원]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영웅 국립 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공원은 "대단함과 저항, 탁월함과 모험, 용기와 자신감, 충성심과 사랑"이라는 미국 정신을 구현하는 인물들을 기리는 수백 개의 조각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웨스트 포토맥 공원을 부지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으며, 250개의 동상을 세우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국가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완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성한 기자

한인 셰프, 요식계 오스카상 '제임스비어드' 최고 영예

워싱턴DC 수잔 베 제과·제빵사 부문

워싱턴 DC의 한인 제과제빵사가 식품업계의 오스카상에 비견될 만한 상을 수상해 동포사회에 경사가 되고 있다.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는 레스토랑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셰프를 비롯해 레스토랑 및 음료 전문가를 기리는 상이다.

15일 밤 시카고에서 열린 2026년 시상식에서 워싱턴DC에 있는 문래빗(Moon Rabbit)의 수잔 베(Susan Bea)가 최우수 페이스트리 셰프 또는 제빵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에서 최우수 제과제빵사상을 수상한 수잔 베 [사진 제임스비어드 재단 제공]

베 셰프는 수상 소감에서 "저는 항상 이 무대에 서는 것을 꿈꿔왔으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

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상이 자신에게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 셰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번 수상은 저 개인에게만 국한된 의미가 아니고, 저를 키워준 공동체, 저보다 앞서 걸어온 세대, 그리고 아직 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젊은 셰프들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는 단순한 인지도를 넘어 레스토랑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영예를 안겨준다. 이 상은 지역 레스토랑을 유명 명소로 만들고, 셰프의

경력을 전국적인 무대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래빗이 최고 영예 중 하나를 차지했지만, 이번 시상식에 참석한 워싱턴 지역의 업체가 또 있는데, 버지니아 주 마셜에 있는 '필드 앤 데인'이 최우수 와인 및 기타 음료 프로그램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맥스웰 파크의 브랜트 크롤'은 최우수 음료 서비스 전문가 부문 결선 진출자로, 그리고 워싱턴DC의 '타포리'도 수상 경쟁에 뛰어들었고, 수레쉬 순다스 셰프는 중부 대서양 지역 최고의 셰프 부문 결선 진출자로 선정되었다.

신규 레스토랑 부문에서는 워싱턴 DC의 '메종바아뱅'이 후보에 올랐다.

김성한 기자

트럼프가 공들인 파랑연못, 녹조류로 뒤덮여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 수도 워싱턴 DC에 새로 단장한 '리플렉팅 풀(reflecting pool)'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으로 보이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지적했다.

리플렉팅 풀은 워싱턴 중심부의 워싱턴기념탑과 링컨기념관 사이에 조성된 연못이다. 1963년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유명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한 장소로도 잘 알려

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명소인 이 연못이 전임 정부들에 의해 방치돼왔다는 연못의 물을 빼내고 콘크리트 바닥에 파란색 방수 페인트를 입혔다. 여기에는 1천420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NYT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달 7일 건국기념일(독립기념일)을 상징해 미국 국기인 '성조기의 파란색(American flag blue)'을 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일

홍보했다.

그러나 여름을 맞아 섭씨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습기가 더해지자 비상이 걸렸다. 조류가 표면을 뒤덮으면서 연못이 '녹조라테'처럼 초록색을 띠게 된 것이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주말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연못의 녹조류를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눈 같다"라거나 이름과 달리 "비치지 않는다(not reflecting)"는 반응을 보였다.



리플렉팅 풀에서 녹조 제거 작업하는 직원들

[로이터-연합뉴스]

케이티 마틴 내무부 대변인은 WP에 "우리는 조류를 제거하고 있으며, 나노 버블 장치가 연못을 유지하고 조류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류는 리플렉팅 풀의 지속적인 문제였다고 WP는 전했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MD, 태양광 사업에 4300만불 지원

4800가구 전기료 절감 효과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메릴랜드 웨스 무어 주지사는 지역 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총 43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임대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태양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정에 할인된 전기 요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릴랜드 에너지 관리국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4800가구 이상의 저소득 가구가 최소 25%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메릴랜드 주 인적 서비스부를 통해 1000가구 이상의 추가로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는 옥상 태양



MSNOW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웨스 무어 주지사(오른쪽).

광 발전 설비, 매립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 그리고 태양 에너지 생산과 농경지 활용을 결합한 농업 프로젝트 등이다.

앞서 무어 주지사는 MSNOW와의 인터뷰에서 메릴랜드 주에 5만5000개

의 신규 사업체 설립과 체서피크만 정화 사업에 3150만 달러 투자를 강조하는 동시에 메릴랜드 주의 기록적인 강력 범죄 감소를 설명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트럼프, DC 연방정부 통제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연방정부가 강력히 개입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DC의 행정권을 직접 인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지 후보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조지 후보는 “트럼프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DC의 오랜 숙원인 ‘주(State) 승격’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C 시내버스 총격... 남성 1명 사망

16일 오전 7시 30분쯤 워싱턴DC 텐리타운 위스콘신 예비뉴에서 경찰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메트로버스 내부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먼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관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용의자와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은 남성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위스콘신 예비뉴 3600~4000 블록 도로가 전면 통제되어 출근길 정체가 극심했다. 현장에는 비밀경호국 부대까지 출동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북VA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연장 반대

북버지니아 전역에서 무분별하게 증설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서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16일에

열린 타운홀 미팅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모여 무조건적인 대기업 특혜 정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주 정부가 거대 IT 기업의 이익 대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 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세제 혜택 연장안이 부결될 때까지 대규모 서명운동과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 프라이머리 선거 개막

6월 16일 오전 7시부터 워싱턴DC 전역에서 프라이머리(예비) 투표가 일제히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12년 만에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지난 35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새 의회 대표를 교체하는 역사적인 투

표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는 워싱턴DC 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Ranked-Choice Voting)’가 도입되었다. 이번 예선 결과는 향후 본선뿐만 아니라 DC의 미래 가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알벗 기자

FBI국장 “백악관 UFC 공격 음모 저지”

“23명 연루돼 5명 구금”

백악관에서 지난 14일 오후 열린 이종격투기(UFC) 대회 ‘UFC 프리덤 250’을 겨냥한 공격 음모가 있었다고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밝혔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FBI와 범접합 파트너들은 워싱턴DC에서 열린 UFC 행사에 대한 수도권 외부 인물들이 연루된 잠재적 위협을 지난 6월10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FBI 및 우리 파트너들과, 연방 법무부의 여러 주에 걸친 신속한 대응 작전 덕분에 다수의 인물이 현재 구금돼 있으며 계획됐던 혐의를 받는 공격들은 완전히 저지됐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경호국(SS) 선 커런 국장도 엑스에 해당 수사 과정에서 FBI와 긴

밀히 협력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특수요원, 임무 지원 인력, 기술보안팀은 24시간 내내 (공격 음모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했다”고 적었다.

커런 국장은 또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나 SS는 당장 어떤 공격 음모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 폭스뉴스 방송은 적발된 음모가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행사장 인근 건물을 공격하고, 대규모 대피를 유도해 미리 배치된 저격수팀 쪽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며 “이후 백악관 출입문을 공격하는 2차 공격이 계획됐다”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FBI는 해당 위협을 처음 파악하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용의자 1명을 구금했다.

수사관들은 이후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해당 음모와 관련한 기록을 발견했으며, 이를 논의한 용의자를 최소 23명 확인했다. 이날 현재 구금된 용의자는 5명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 중 일부는 해당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또는 13일에 워싱턴DC 서남쪽의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로 이동할 계획에 연루됐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해당 공격 음모와 관련, “23명이 상당한 자금과 조직 없이 워싱턴DC에서 대규모 테러 사건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몇몇 놈들의 미친 짓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계획된 테러 음모”라고 규정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워싱턴의 많은 민주당 동료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쳐다보며 ‘왜 이토록 많은 정치적 폭력이 우리 진영 스펙트럼에서 비롯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방앗간 / 반찬 / 잔치음식 전문점
Oh! Market 낙원떡집
케이터링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oming Soon
PARADISE CATERING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량구매(미락소) 몰
워싱턴노래방
300m
뉴타운몰

미락소 몰 대량구매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몰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크게 흔들리는 지구...인니, 중국, 일본서 강진 잇따라

인니 술라웨시섬 팔루 인근서 규모 6.7 지진...8명 중경상
중국 서부 칭하이서 규모 6.3 지진...사망 1명
일본 군마·사이타마현 규모 5.5 지진...“쓰나미 우려 없어”



인도네시아 팔루 인근서 발생한 지진으로 파손된 건물

[EPA=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오전 11시27분쯤 인도네시아 증브 술라웨시섬 팔루 인근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해 8명이 다쳤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진 발생 깊이가 10km, 진앙은 39만명 가량이 사는 팔루에서 남동쪽으로 43km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이 지진으로 8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일부 건물의 벽과 지붕이 무너졌고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첫 지진은 4~6초가량 지속됐으며 이후 최대 규모 5.2의 여진이 10여차례 더 발생했다.

팔루에 사는 무타르 아맛은 AP통신에 “진동이 매우 강했다”며 “여진 때문에 두려워 밖에서 머물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한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자주 발생한다. 지진만 매년 7천건 넘게 일어난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의 반다아체시 해상에서 규모 9.1 강진이 일어난 뒤 쓰나미가 덮쳐 17만명이 숨졌다. 한국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규모 5 이상 지진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 서부 칭하이성에서도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현지시간) 오후 5시 6분쯤 칭하이성 하이시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오후 6시 40분 기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다. 진앙은 북위 37.80도, 동경 95.5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매체 매일경제신문은 진앙 부근에 다수의 소금 호수가 있으며, 찜거광업 등 증시 상장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지진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생산·경영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진앙 부근 탄광 기업의 작업 인원들은 이미 전부 철수했으며 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간) 오후 7시 46분께 일본 혼슈 중부 군마현 남부와 사이타마현 북부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

은 북위 36.10도, 동경 139.90도이며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남부로 추정된다. 지진 발생 깊이는 50km다.

이 지진으로 군마현 오타시 등에서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약은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지거나 고정하지 않은 가구 등이 쓰러지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이 지진으로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다. 다만,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날 우려는 없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원자력발전소에 따르면 진도 3이 관측된 이바라키현에 있는 도카이 제2 원전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쿄에서 출발해 일본 북동부 등 지역으로 가는 도호쿠 신칸센과 조에쓰 신칸센은 지진으로 운행을 일시 정지했다. **홍알벗 기자**

유럽의회, 미국 무역협정 승인...트럼프 마감시한 맞춰

유럽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한 시한을 앞두고 작년 7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합의한 무역협정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0표, 반대 151표, 기권 50표로 가결했다.

양측 무역협정의 최종 관문 격이었던 이날 유럽의회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내달 4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1년이 다 되도록 양측 무역협정에 대한 유럽의 법제화 작업이 지연되자 내달 4일까지 협정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의회 문턱을 넘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은 오는 26일 EU 27개 회원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발효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의 승인 안건을 놓고 표결을 진행하는 유럽의회

[AFP=연합뉴스]

협정이 발표되면 EU는 작년 7월 스페인 코틀랜드 틴베리에서 양측이 합의대로 미국산 공산품과 일부 농산품에 대

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EU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은 15%로 제한된다.

유럽의회가 가결한 이번 법안은 2029년 말까지 유효하며 미국이 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EU가 양보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미국이 유럽산 세탁기 등 철강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15%가 넘는 관세를 올해 말까지 인하하지 않을 경우 EU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베르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한 압박 속에서도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국가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엑스(X·옛 트위터)에 “EU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적어 유

유럽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에 맞춰 무역협정을 승인한 것을 반겼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는 이 무역협정이 유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불만이 팽배했지만 대서양 무역 전쟁을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안보에 중요한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서 손을 떼는 상황을 막고자 불균형한 협정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의회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과 갈등을 빚은 지난 1월,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지난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승인 절차를 중단하는 등 협정을 순순히 통과시키지는 않았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협정이 무역전쟁 끝에 발효를 눈앞에 뒀지만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의 규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양측의 무역 갈등이 새롭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등은 예상했다.

‘푸틴 풍자’ 러시아 반체제 작가 폴란드서 피살

벨라루스 국적 용의자 2명 체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권력을 비판해온 반체제 작가 폴란드에서 암살당했다.
폴란드 매체 폴스키에라디오와 독일 차이트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께

(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비아와포들라스카에서 러시아 출신 풍자작가 시몬 스크레페츠키(44·본명 로베르트 쿠좁코프)가 총격에 숨졌다.
루블린 검찰청은 총격범이 권총으로 세 발을 쏜 뒤 피해자가 쓰러지자 가까운 거리에서 두 발을 더 쏘았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비아와포들라스카 주재 벨라루스 영사관 인근에서 33세, 37세 벨라루스 국적자 2명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비아와포들라스카는 벨라루스와 국경에서 약 35km 거리에 있는 도시다.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공화국 태생인 스크레페츠키는 푸틴 대통령과 러

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탐잔 카디로프 체첸 공화국 수장, 2024년 감옥에서 숨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등의 풍자 초상화를 그렸다. 그는 2021년 정치적 박해 우려가 있다며 폴란드로 망명했다.

스크레페츠키는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12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주변에서 자기 작품을 들고 행진했다. 러시아 국기를 쓰레기통에 처넣는 퍼포먼스도 했다. 그가 들고 나온 작품은 푸틴과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1879~1953)을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관계에 빗댄 성화 양식 초상화였다. 이날은 소비에트연방 해체 당시 러시아의 국가주권 선언을 기념하는 국경일 ‘러시아의 날’이었다.

↻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 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십시오!"

QR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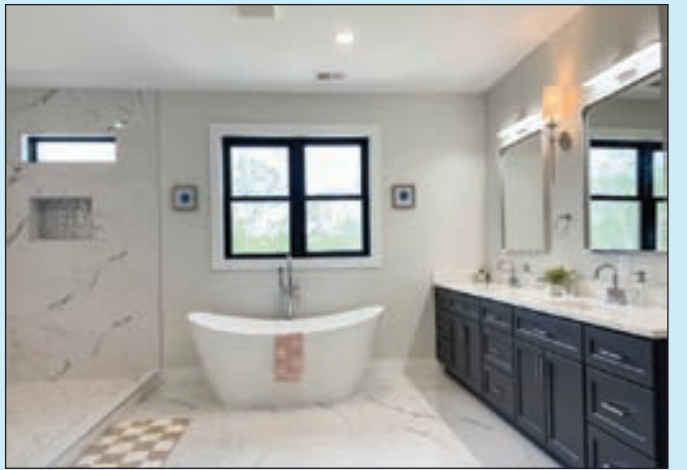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일본 31년 만에 기준금리 1%대...“엔 캐리 청산은 제한적”

시장 전문가들 “일본금리 인상기조 선반영...아직 엔 캐리 장점 남아”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일본은행 ‘원칙론’...인상 직후에도 엔 약세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정책 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에서 ‘1.0% 정도’로 0.25포인트 올리며 1995년 이후 약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4월 1.75%에서 1.0%로 인하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1.0%에서 0.5%로 추가 하향 조정된 이래 0.5%를 넘지 않았고 2016년부터 일본은행은 여유자금을 맡기는 금융기관에서 보관 수수료를 받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초저금리 중단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표방한 우에다 가즈오 총재 취임 이후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로, 지난해 1월 0.5%로 각각 올린 뒤 지난 12월 0.75%까지 올렸다.

이후 숨 고르기가 이어지다 반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1%대로 진입한 데는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상황이 원유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던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 것이 결정적이었다.



세계 각국 통화(달러·유로·엔·원)

[촬영 이세원]

일본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지원 효과를 제외한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르며 고유가가 근원물가 상승률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했다.

지난달 기업물가지수(속보치)가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하며 2023년 3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도 일본은행이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물가 방어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저금리 정책이 낡은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일본은행이 2024년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로 올리고 우에다 총재가 추가 인상을 시사하자 엔 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복귀하는 흐름이 나타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단기 충격이 발생한 것이 최근 있었던 대표적인 엔 캐리 청산 사례로 꼽힌다.

2024년 8월 초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화 대비 3.3%까지 급등했고 한국 코스피를 포함한 세계 주식 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갑작스러운 엔고에 일본 기업 수출 지원 효과가 드리우자 일본은행이 한 주 만에 추가 인상이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고 나서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혼돈이 진정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2024년과 같은 ‘발작’ 수준의 엔 캐리 청산에 따른 혼란은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 보고 있다.

일본 기준금리가 1%대에 막 진입하며 여전히 글로벌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고 미국, 유럽과의 금리차도 유지되고 있어 엔 캐리 트레이드의 장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수개월 전부터 표명해온 이유로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상승분을 이미 선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미쓰이스미토모DS자산운용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이날 있었던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1%로 인상과 국제 매입 감액 중단 결정이 이뤄져도 시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일본 주식 시장이나 국제 시장, 엔 시세에서 일어날 반응은 한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된 지난달 26일 시점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추산한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의 엔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엔화 매도 규모가 1조 4천억엔(약 13조 2천억엔)으로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4년 7월 이후 가장 커지기도 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미 예고된 일본 기준금리 1% 이상 인상이 향후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에 쏠리는 분위기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인상을 포함해 일본은행이 반년마다 25bp(1bp=0.01%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정책 금리를 1.5%까지 끌어올린 뒤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장 가격은 일본 기준금리가 최종 2% 수준에 도달할 상황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와 5년째 이어지는 무역 적자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자국 재정 정책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커 속도감 있는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은행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입원 중인 우에다 총재를 대신해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 입에 이목이 쏠렸으나 그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치다 부총재는 경기를 침체시키지도 과열시키지도 않을 중립 금리를 일본은행이 연 1.1~2.5%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중립 금리 추계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며 선행 금리 인상 전망에 유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매파적이지도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은 원론적 입장을 펴면서 금리 인상 직후 도쿄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강세가 나타날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밴스 “이란에 미국돈 1센트도 안가”...오바마 핵합의와 차별화 시도

“오바마, 이란에 10억불 이상 지급...결프국, 트럼프 구상에 환영”
“카타르 등 자금 투자될 수도...이란, 제대로 행동해야 혜택 누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와 관련해 “미국의 돈은 단 1센트도 이란으로 가지 않는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란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돈이 아닌, 아마도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자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타르 등 국가가 “어쩌면 이란에 투자해 발전소를 짓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협상에 따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이며, 이는 검증 가능한 조치들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핵 관련 합의 사항을 준수할 경우에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지만, 이는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 아닌 카타르 등 주변 걸프 국가들의 투자 형태 같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은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 지원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나 대이란 제재 완화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 같은 지점이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와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에 미국 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서 “오바마 행



밴스 부통령

[AP=연합뉴스]

정부는 이란에 10억 달러 이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이 언급한 ‘10억 달러 이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이란에 지급한 17억 달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전에 이란

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려고 미국에 건넸던 원금 4억 달러와 그사이 발생한 이자 13억 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이는 3차례에 걸쳐 유로와 스위스 프랑 등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혁명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

기를 인도받지 못하자 해당 자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미국은 법적 분쟁 끝에 이를 돌려주게 됐다는 것이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설명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17억 달러 지급이 핵합의의 대가가 아니라 기존 채무를 정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사실상 핵합의 과정에서 이란에 제공된 경제적 혜택의 사례로 규정하며 비판 공세를 이어왔다.

밴스 부통령은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가 이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아 걸프 국가들의 반발을 산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평화 계획’은 걸프 국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면 “모두에게, 그 지역 전체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는 별다른 손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모식

맛있는 음식만 전하는 센터빌 빛고을에서
여름 런치스페셜을 선보입니다.
(월요일 ~ 금요일)

센터빌 빛고을 순두부

Lunch
Specials

FREE 군만두

\$13.99

갈비 돌솔 비빔밥

FREE 군만두

\$14.99

비빔 모밀국수

FREE 군만두

\$13.99

물 모밀국수

New
Menu

\$19.99

갈비 2대 + 모밀국수
Galbi (2pcs) + Cold Buckwheat Noodles

곱창순두부

703-825-1550

6035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s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HANS TRAVEL

TALK Instagram Facebook

한스관광 hanstravelusa Hans Travel 친구 추가! 실시간 상담 가능

버스 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항공사 공식 대리점 KOREAN AIR AIR PREMIA DELTA TURKISH AIRLINES

독립기념일 특선

스모키마운틴

딕시템프 디너쇼/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2박3일 7/3(금)-7/5(일)
\$899

한스 대형버스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북유럽(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발틱(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3박14일 7/16(목)-7/29(수)
\$6,6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돌로미테

8박9일 9/17(목)-9/25(금)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유럽의 숨은 보석

캐나다 나이아가라 천심, 왓킨스글렌

2박3일 7/3(금)-7/5(일)
\$790

한스 대형버스

오스트리아, 체코 클래식 감성여행

10박11일 10/7(수)-10/17(토)
\$6,5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스페셜 기획

알프스 가을 파노라마 기차여행

9박10일 10/18(일)-10/27(화)
\$5,50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황금빛 알프스를 달리는 특별한 여정 가을 스위스 기차여행

여름방학 특선

캐나다 나이아가라 몬트리올, 퀘벡

3박4일 7/22(수)-7/25(토)
\$950

한스 대형버스

웨스턴 캐리비안 크루즈

바하마-코코케이 섬-자메이카
7박8일 2026년 12/13(일)-12/20(일)
보드워킹 발코니 객실 \$1,630 항공불포함
마이애미 공항-항구 트랜스퍼 포함
인솔자 동행

6/30까지 \$100 할인 EARLY BIRD SALE

12월 연말파티 준비끝! 가족, 부부 동창 모임
맛있는 식사 멋진 엔터테인먼트 쇼와 댄스!! 인생 연말모임

3명 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 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6/25(목)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7/2(목) \$650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우드버리아울렛-뉴욕 나이아가라 유람선, 윈월드 전망대,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포함

AIR PREMIA GOLDEN AGE PROMOTION

한국 왕복 항공권 15~20%할인
대상 : 만 55세 이상 / 발급 기한 : 7월31일

한스 2026 여행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6,695	재키 조
07/16(목)-07/25(토) 북유럽 4개국	9박10일 \$5,240(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재키 조
07/23(목)-07/29(수) 헬싱키 & 발틱 3개국	6박7일 \$2,590(헬싱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감
07/27(월)-08/01(토) 캐나다 록키	5박6일	마감
08/06(목)-08/12(수) 알래스카	7박8일	마감
08/21(금)-08/28(금) 아이슬랜드	7박8일 마감임박 \$6,995	재키 조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8박9일	마감
09/17(목)-09/25(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돌로미테	8박9일 \$3,590	세라 정
09/19(토)-09/27(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재키 조
09/27(일)-10/10(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3개국	13박14일	마감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3,590	애나 김
09/28(월)-10/06(화) 북프랑스 낭만여행	8박9일 \$3,890	애나 김

10/07(수)-10/17(토) 오스트리아, 체코-클래식 감성여행	10박11일 \$6,595	NEW스페셜 재키 조	
10/8(목)-10/17(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11박12일 \$3,790	애나 김
10/12(월)-10/24(토) 그리스 & 튀르키예 성지순례	12박13일 \$3,490	조앤 한	
10/14(수)-10/24(토) 한국의 맛, 가을 단풍 여행	10박11일 \$2,990	인솔자	
10/18(일)-10/27(화) 알프스 가을 파노라마 기차여행	9박10일 \$5,500	재키 조	
10/26(월)-11/07(토)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9(목)-11/07(토) 튀르키예	9박10일 \$2,980		
10/31(토)-11/07(토) 일본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7박8일 \$3,950	재키 조	
11/06(금)-11/19(목) 요르단 & 이집트	13박14일 \$5,890	데이빗 한	
11/10(화)-11/19(목) 이집트 & 니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11/09(월)-11/21(토) 네팔 & 부탄 왕국	12박13일 \$5,690	조앤 한	
11/25(수)-11/29(일) 코스타리카	4박5일 \$2,190	워싱턴출발 항공포함 세라 정	
12/05(토)-12/18(금) 하와이 뉴질랜드 시드니 여행	13박14일 \$6,790	재키 조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쉬모어/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3박4일 9/4(금)
\$1,040 항공불포함

엘로스톤 10/5까지 3박4일 \$950 항공 불포함 매주 월, 금 출발

서부4대개년 4박5일 \$99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7박8일 \$1,54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전쟁 다큐의
새 역사를 쓰다

인류애 휴머니즘 다큐

6.25 다큐멘터리, 한미동맹 강화
명품 희귀 다큐 **삼영회**
전장의 유산
You are invited to a film screening
귀하를 초대합니다

Documentary celebrating
America 250th
**LEGACY OF
THE BATTLEFIELD**
"THANKS FOREVER"

감독 | 김채영
Directed by KIM CHAE-YOUNG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다큐.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힘'이다.
"Peace Through Strength" by US President Trump.

장소 | Regal Fairfax Towne Center
(4110 West Ox Rd., Fairfax, VA 22033)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PM 3:00 / 감독과의 대화
PM 4:00 / 영화 관람 (영어 버전, 한글 자막)
(관람료 \$20)



주관
미주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 린다 한 외 회원 일동

PRESENT |  

This documentary aims to be the first in the world to reveal the philanthropic spirit
and humanitarian of America, hidden in the Korean War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전쟁에 숨겨진 미국의 인류애 박애 정신과 휴머니즘을 세계 최초로 조명한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그날의 총성,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장의 유산’ 김채영 감독

오는 6월 18일 오후 워싱턴 인근에 있는 ‘리갈 페어팩스 타운센터(4110 West Ox Rd, Fairfax, VA 22033)’에서 상영될 김채영 감독의 ‘전장의 유산’은 단순한 전쟁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김일성에 의한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참혹한 전쟁 속에서 한민족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우뚝 일어섰는지를 집요하게 그려냈는데, 그 중심에는 ‘기억해야 할 이름 없는 용사들’ 미군이 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장의 유산 워싱턴 상영회를 준비한 김채영 감독을 지난 12일 애난데일 한인타운의 한 사무실에서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시작에 앞서 그는 대뜸 “21세기를 미디어 전쟁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문화 전쟁의 전선에서 카메라를 든 이유부터 꺼냈다.

그러면서 김 감독은 ‘전장의 유산’은 일반 다큐와는 다른 ‘체험형 다큐멘터리’로, 비참했던 6.25 한국전쟁 당시의 주요 전투(다부동과 장진호 전투 등)와 메리디스 빅토리오의 기적 같은 구출 작전을 소재로 한미동맹의 소중한 가치와 자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의 76년의 한을 풀어주었다고 강조하는 김 감독은 ‘전장의 유산’은 어떤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냈다고 말했다.

- 김채영 감독님, 반갑습니다. 왜 ‘전장의 유산’을 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잊혀져 가는 진실’과 ‘기록의 부재’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76년 전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6.25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어나 ‘자유’의 가치와 ‘인류애’가 왜곡되거나 지워져 가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피가 솟아 올랐지요. 전쟁을 잊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을 뿐더러 국가안보가 아주 위태로워 지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 전후 세대들이 역사의 진실과 새로운 교훈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한국인은 물론 미군의 희생과 헌신이 절대 잊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무너져 가는 한미동맹을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 용사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워싱턴을 찾은 김채영 감독.

더욱 공고히 하는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카메라를 잡게 한 보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굳이 계기를 말한다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당시 평범한 사업을 하고 있던 저는 2016년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나라를 바로 잡을 방법을 찾기 위해 책을 쓰고 카메라를 잡게 되었지요.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 전장의 유산은 기존 다큐와는 다르게 ‘스토리텔링’ 방식을 택한 이유는?

“여러 고민 끝에, 다큐멘터리이지만 생생한 오디오와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영상을 통해 76년 전 비참한 전쟁터에 그대로 서있는 듯한 느낌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효과음을 원래대로 재생한 것이 자랑이지요.”

- 전장의 유산 후속편을 준비하는게 있나요?

“네, 지금 야심차게 준비 중인 것이 있는데요. ‘소환 박정희’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인물 일대기를 넘어, 한국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국제 정세를 글로벌한 시각으로 담아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시대가 소환한다는 의미로 ‘소환 박정희’

로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 한미동맹을 특별히 강조하셨는데요?

“영화 속에서 인천의 바다를 뛰어넘어 산화한 발도메르 로페즈 중위, 실종된 아들을 찾기보다 임무를 택한 벤 플리트 장군, 그들의 이야기는 한미동맹의 뿌리와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 이야말로 진짜 평화의 기반”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합니다.”

- 워싱턴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문화 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지구촌 자유 세력들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슈로 전개하는 것은 보다 쉬운 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대중의 마음속으로 가장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글로벌 연대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영화 상영회에 한인은 물론이고 한인차세대와 미국인들이 가급적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채영 감독 [국회 대회의실 시사회 2024.9.24]

감독 김채영 약력

- 임권택 감독 영화 '천년학'(서편제2) 제작
- SBS 대하드라마 '토지', '서동요' KBS드라마 '황진이' 제작 참여
- 종근당, 롯데백화점, 한성204, 우체국우정사업부 CF 제작 외 다수 작품 제작
- 목원대학교 미대 디자인학부 디지털 사진영상학 겸임교수 역임
- 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덕션 서울 강남 본사 대표 역임
- 현) 컬츠인큐티에프(영화제작사) 대표,
- 전장의 유산 제작 감독
- 저서 / 북한비밀첩보사업가 김동철박사 고백전 <경계인> 네이버 베스트셀러 작가
- 정치 디스토피아 소설 <망각공화국천로역정>
- 정치 레제시나리오 <무궁화지고피다> 외 다수
- E-mail / maykim1843@naver.com

긴박해진 투표지 시위 상황...장은 잠실·의원들은 경찰 방문

“무도한 진입 시도 막을 것...강제해산시 민심 역풍”...현장 중재 시도도 나경원 등은 서울경찰청장에 “참정권 보장 요구에 패가망신이라니” 항의

국민의힘이 16일 이른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현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전방위적인 대응을 나섰다.

시위로 사무실 출입이 막힌 체육단체가 개표소로 사용됐던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에 공권력 행사를 요청하자 장동혁 대표 등은 현장에서 시위에 합류하는 동시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점심 전에 시위 현장을 찾아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과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4선 중진 박대출 의원,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수진·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원내부대표인 김민진·서명욱·박충권 의원, 당 대표 정무실장인 김장겸 의원 등도 속속 합류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운운

하며 시민과 청년을 겁박했다”며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 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다. 특검이다. 선관위 개혁이다”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후에는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만나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단체당 2명씩 순차로 내부에 들어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는 방안의 중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결과로 만들어내려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와 별개로 5선 중진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9명은 서울경찰청을 찾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찾아 대한체육회, 방송 라이브 취재진 등의 진입과 관련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았다. 이들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위대에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항의했다.

느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느냐. 서울청 지휘부가 이렇게 취약했느냐”고 가세했다.

그러자 박 청장은 “현장에서 범죄도 이뤄지고 있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리면 중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것”이라며 “거친 표현이었던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서울청 항의 방문에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올림픽공원에 공권력 투입을 시도했다. 서울경찰청장의 출세만을 노린 불법 과잉 조치 아니냐”라며 “패가망신할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라고 썼다.

이어 “투표함은 직접 증거물로 누구도 함부로 증거인멸할 수 없다. 시민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표함 보존 방안이 이행된다면, (핸드볼경기장에) 선수들 출입은 당연히 허용된다”면서 “중앙선관위와 정부는 왜 평화적인 방법에 대해 손을 놓고 물리력으로 강제 해산할 공리만 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찰 측은 언론에 면담 과정을 공개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실제 면담은 예정 시각보다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시작했다.

체육단체 잠실개표소 진입, 끝내 불발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후폭풍

야당의 중재로 합의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잠실 개표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이 시위 참가자 1명의 반대로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오후 4시께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취재진과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들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 10분께 체육단체·경찰과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만에 상황 종료로 알려진 것이다.

애초 장 대표는 체육 단체당 두 명씩 순차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오고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두 대가 동행해 생중계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장 대표가 이를 발표하고 현장의 시위 참가자 다수가 동의를 표하며 중재안은 사실상 추진됐다.

이에 단체와 취재진의 경기장 진입 준비가 완료됐으나 출입문 앞에서 성



잠실 핸드볼경기장 진입 저지하는 시위 참가자

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청년 한 명이 문을 붙잡고 저항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시위 참가자가 두 시간가량 여성을 설득했으나 통하지 않자 장 대표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이번 시위는 주최자가 없어 참가자 개인의 행동을 통제할 주체가 없다. 성사되는 듯했던 경기장 진입이 불발되자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어 가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돌을 들고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

잡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상황 종료로 알리자 일부 참가자는 환호하며 2-1 게이트 문을 청테이프와 끈으로 묶어 완전히 봉쇄했다.

반면 개표소 봉쇄시위 11일 만에 사무실에서 업무 자료 반출을 기대했던 체육단체 직원들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기장 내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출입을 차단해왔다.

대한체육회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 행사를 촉구하고, 경찰도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패가망신”(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거론하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다만, 이날 문을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한 여성에 대한 수사 계획이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이 강요와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이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 공장 큰불 20시간만에 진화

인천 북항 인근 공장 밀집 지역에서 16일 큰불이나 건물 25개 동을 태우고 20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9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가 확산하면서 총 17개 업체의 공장·창고 건물 25개 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에 ‘대응 1단계’를, 2시간 10분 만인 오전 3시 59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

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한 뒤에는 경보령을 해제했으며 화재 발생 약 20시간 만인 오후 9시 44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진화 과정에서 소방헬기를 비롯한 장비 155대와 소방관·경찰관 등 465명을 동원했다.

불이 난 지역은 공장과 창고들이 좁은 간격으로 붙어 있고 목재를 비롯한 다량의 가연성 자재를 보관하고 있어 불길이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려고 다량의 물을 뿌렸으나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공장 내부에 도달하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장 밀집 지역 화재 진압하는 소방대원들 [연합뉴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REACTIVI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11893 Berton Lake Rd, Bristow, VA	\$689K	Victory 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 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 편리, 6/25일 마켓에 올라올 예정	울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농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7월 - 12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2905 Bleeker St #4-304, Fairfax, VA	\$675K	셀러/바이어 서로 좋은 조건으로 협의 개역, Everybody Happy 7/15 세팅먼트 예정	2233 N Underwood St, Falls Church, VA	7/1 입주가능	\$10,000 2020년에 새로 지은 싱글 홈, Haycock ES - Longfellow MS - McLean HS
13511 Lavender Mist Ln, Centreville, VA	\$675K	투자용 집으로 구매, 1031 Exchange Program 으로 같이 팔, 7/6 세팅먼트 예정	6615 Anthony Crest Sq, McLean, VA	8/15 입주예정	\$5,500 환상적인 집, 5개 신형서 중에서 Lori 손님 선택, 주재원 2년
13343 Connor Dr, Centreville, VA	\$425K	Stone Gate at Faircrest 콘도, 방 2, 차고 1, 3층 타운형 콘도, 학군(골린 파빌 초등) 좋고, 교통, 생활 편리, 6/30 세팅먼트 예정	74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7/1 입주예정	주재원 3년, 하루의 공실임이 주재원 연결
10003 Donal Ln, Vienna, VA	\$1.4M	손님이 너무나 원하던 동네, 6개의 경쟁 오피스 풀고 \$3K 차이로 득템, Buyer So Happy, 6/30 세팅먼트 예정	1968 Hopewood Dr, Falls Church, VA	6/16 입주예정	주재원 2년
6505 Orland St, Falls Church, VA	\$1.275M	Haycock 초/몽펠로우 중/맥클린 하이, 경쟁 오피스 풀고 득템, 바이어 아이돌이 완전 해피, 6/22 세팅먼트 예정	7019 Alicent Pl, McLean, VA	7/5 입주예정	주재원 3년
9902 Michael Schar Ct, Vienna, VA	\$835K	투자용 집으로 구매, 한국에서 나오는 주재원 렌트 농을 예정 6/18 세팅먼트 예정	2726 Gallows Rd, Vienna, VA	6/25 입주예정	주재원 2년
11423 Abner Way, Fairfax, VA	SOLD	5개의 경쟁오피스 풀고 득템, Buyer So Happy 6/12 세팅먼트 완료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20120	RENT	시랑하는 우리 교민, 2년

직통 703-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줄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금감원, 미래에셋 무기한 검사...스페이스X 발언도 볼 듯

배정 물량 불확실한데 적극 홍보 스페이스X 관련 민원 이어져

금융감독원이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006800)의 검사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공모주 배정 무산 전 과정을 파악하기로 했다.

공모주 배정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미래에셋증권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만큼 당국이 내부 통제 문제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검사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번 사태 관련 투자자 보호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 검사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살펴볼 사안들이 있어 많이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관



'스페이스X0주 배정' 미래에셋증권

[연합뉴스]

련 민원도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과 스페이스X 공모주를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편입하겠다고 홍보한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관련 금융회사들에는 소비자 불만·항의·이의 제기 등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현장점검을 5일 시작했고 9일 검사로 전환했다.

애초 당국의 점검 대상은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상이었던 개인·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이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이 배

제되는데 이런 위험성을 투자자에 충분히 사전 안내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검사 전환 이후 공모주 배정 무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해당 경위도 함께 살펴보는 중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각 인수인에 실제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대표주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1주도 배정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이례적이라고 보는 기류가 읽힌다.

특히 대표주관사의 최종 배정 과정에서 공모주 물량이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미래에셋증권이 일찌감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라는 점도 주목한다.

실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지난 4월 한 매체 인터뷰에서 향후 배정받을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이 상당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며 최대한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

을 밝혔다. 이에 당국은 경영진의 행보와 이후 미래에셋증권의 전사적인 청약 모집 과정 등을 점검해 전체적으로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과장·허위광고와 마케팅 과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실제 한투운용의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는 애초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스페이스X 공모주를 편입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시장 매수로 해당 종목을 담게 됐다. 공모주 편입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는 실망감이 이 종목의 전날 주가는 전일 대비 10.81%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금감원은 4월 출범한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문제를 포함해 논의한 뒤 3분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상승국면 진입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 매매심리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7포인트 오른 116.7을 기록하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



한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6.1포인트 오른 125.2로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서울(135.6)이 10.7포인트 올라 오름폭이 컸고 경기

(122.2)는 4.5포인트, 인천(111.8)은 1.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비수도권(106.3)은 2.3포인트 올라 보합 국면을 이어갔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이 113.2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서울(124.2)은 4.8포인트, 경기(118.1)는 3.0포인트 상승했고 인천(109.2)은 2.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119.0)로는 3.0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이 지속됐다.

비수도권은 0.2포인트 상승한 106.3으로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111.4)는 전월 대비 2.7포인트 올랐다.

한국수입엑스포, 23일 코엑스 개막

한국수입협회는 오는 23~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제23회 한국수입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입엑스포(옛 한국수입박람회)는 해외 상품을 전시하고 소싱할 수 있는 수입 전문 기업 간 거래(B2B) 박람회로, 2003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행사는 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후원한다.

올해는 전 세계 30여개국, 150여개 기업이 참가해 프리미엄 식음료, 농산물, 소비재 등을 선보인다.

특히 유럽연합(EU)이 공식 주관국으로 참여해 유럽 각국의 검증된 우수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국내 대형 유통사, 이



지난해 한국수입엑스포 모습

[한국수입협회 제공]

커머스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가 운영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국내 기업들에 새로운 수입선 발굴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가짜 K뷰티' 막는다...정부·업계 위조화장품 대응 공조

K뷰티 열풍을 타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처럼 만든 '위조 화장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16일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K뷰티의 글로벌 성

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화장품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K뷰티가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자 위조 상품 문제도 심각해진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라

면 지난 2024년 한국 기업 지재권 침해 위조 상품 규모는 97억달러(약 14조6천억원)인데 이중 화장품 비중이 10%(세관 압류가액 기준)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별로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 식약처와 지재처, 관세청, 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정기마다 정기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을 하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위한 협업을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식약처는 K뷰티가 글로벌시장에서 입지를 더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의 관세 당국,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가치를 올려 판매하는 부동산 비키리

집을 고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 수리비 선지출 없음 (클로징 정산)
- ✓ Before / After 전략으로 집값 상승
- ✓ 빠르고 안전한 판매

집값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Before



After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매릴랜드, D.C.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매릴랜드 주택 납세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허위로 보기 어려워”

법원 “자진 월북 아니라고 단정할 자료 없고 검찰도 확정 못해”

서훈 “당시 정부 판단 합리성 인정한 것”... 유족 “ICC 제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 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당시 해경의 1:2:3차 수사 결과 발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죄

로 인정하려면 먼저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망인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 검찰 역시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에 다소 성급했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고 원심을 유죄로 유지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당시 정부 판단의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인 기획·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면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와 안보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을 수사하고 압박하는 일이 없어졌으며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

해 피격 사건 조작이나 허위 발표 논란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족인 이대진씨는 “예상된 결과”라며 “재판부와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고

반발했다.

이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생각”이라며 “국제사회에 알려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0년에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명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도 이날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 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 이적)를 받는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과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으며, 실제로 우리 전력에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또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로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피자헛 회생계획 인가 채무 일부 변제 후 법인 청산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신설 법인 PH코리아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활용해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회사를 청산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고했다.

한국피자헛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이 공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 총계는 659억9천만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15억8천900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치 평가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32억2천100만원, 청산가치는 129억6

천900만원으로 산정돼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난 1월 15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를 고려하면 독자적인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이에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부분을 청산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됐다.

한국피자헛은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폴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양수도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PH코리아는 한국피자헛에 매각대금 110억원을 지급했다. 이 대금은 한국피자헛의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마스크 쓴 장원영 공항 신분확인 논란...공항 “절차안내 강화”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아이돌그룹 아이브 장원영(사진)의 김포공항 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신분 확인 논란과 관련해 신원 확인 절차 안내를 강화한다.

공사는 향후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여객 신분확인 절차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장원영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장씨는 지난달 30일 김포공항 보안 검색요원에게 마스크만 살짝 내리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져 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신



원확인 절차 기준과 공식 안내를 구체화 하라는 민원이 지난 15일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운영단 보안관리부에 접수된 바 있다.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항공보안표준절차서’에 따라 인 천국제공항과 동일한 신분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 확인 시에는 모자·마스크·선글라스 등 얼굴을 가리는 물품을 제거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비엔나 콘도	스프링필드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SOLD	 SOLD	 UNDER CONTRACT	 UNDER CONTRACT
\$339,000 방1 / 화1+Den, 비엔나중심 위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645,000 방3 / 화2.55 / 차고1 /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한 로케이션	\$595,000 방3 / 화3.5 / 2 Assigned. 지붕, 부엌(2024), P Bath(2026), HVAC 등등	\$1,120,000 방 4 / 화 3.5. 집 전체 수리 많이한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갤럭시 S26 플러스

아이폰 17 프로

공짜

공짜



Contract 위약금 때문에 옮겨 오시기 망설여지신다구요? 라인당 최대 \$80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갤럭시 S26 플러스 (256GB)

~~\$1,100~~

\$0

• \$95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시



아이폰 17 프로 (256GB)

~~\$1,100~~

\$0

• \$290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시



갤럭시 S26 울트라 (256GB)

~~\$1,300~~

\$5.56 /월

• \$95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시



아이폰 17 프로맥스 (256GB)

~~\$1,200~~

\$2.78 /월

• \$290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시

비즈니스 오너/개인사업자 4라인

\$80 /월

사용중인 폰 그대로 AT&T로 통신사 이동시

AT&T 인터넷 \$20 /월



AT&T 모바일 서비스 이용 고객 기준

MD **락빌 / 실버스프링(Aspen Hill 쇼핑센터)**
 (301) 910-7700
 13615 Connecticut Ave. Silver Spring, MD 20906

VA **페어팩스(99 Ranch Market 옆)**
 (703) 591-2442
 1075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MD **엘리콧시티(롯데플라자 내)**
 (410) 465-0218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AT&T 페어팩스에서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근무형태: 풀타임 / 파트타임
 문의: (571)274-8901

● 상기 프로모션은 AT&T NEXT로 구매한 것에 한함. ● 상기 프로모션은 무제한 프리미엄 또는 엑스트라 플랜 가입 필수. ● 갤럭시 S26 플러스/울트라 프로모션은 \$95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필수, 아이폰 17 프로/프로맥스 프로모션은 \$290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필수.(Find my iphone 기능이 꺼지는 폰에 한에서만 트레이드인 가능) ● 비즈니스 프로모션 월 플랜 가격은 24개월 간제공기준. ● 인터넷 가격은 AT&T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기준, Autopay, Paperless bill 신청 할인 적용된 가격이며, 12개월간 매월 상기 가격으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월 \$35로 자동 변경됨. ● 모든 프로모션은 매월 크레딧으로 제공.(차액 발생시 본인부담) ● TAX 및 기타 FEE는 별도. ● 상기 프로모션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 또는 종료 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사전 확인 요망.

인&아웃

‘조롱·혐오·막말’ 정치언어의 타락

최근 세미나 모임에서 발제에 나선 중견 정치학자는 “지금 우리 정치에는 합리적 논쟁이 사라지고 선동과 적대, 조롱과 야유, 증오와 공격적 열정만 있다”며 정치 언어의 타락을 개탄했다. 그는 “여야 간 정치의 기능이 약해진 것과 비례해 직접 지지자를 겨냥하는 정치가 강해지면서 거리에서 대중 동원이 자연스러워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대규모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6·3 지방선거도 선동과 적대, 조롱과 야유, 증오와 공격이 담긴 저질 언어가 선거판을 오염시켰다. 상대방을 향해 “내란 세력”, “극우 광신도”, “범죄자”, “독재자” 같은 극한 표현이 떠돌았고, 온라인 공간에선 “수박”, “툇딱”, “개팔”, “태극기 부대” 같은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넘쳐났다. 정책 경쟁을 해야 할 선거에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언어 전쟁으로 흐르는 현상은 전혀 낯설지 않게 됐다.

소셜 미디어(SNS)와 유튜브는 이런 표현을 확산시켰고, 자극적인 발언은 정책 공약보다 더 관심을 받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는 상대를 설득하는 협상 공간이 아니라 상대방과 난타전을 치르는 옥타콘이 돼버렸다. 정치인의 조롱·



인공지능(AI) 생성 삽화

혐오·막말은 이제 개인의 일탈로 보면 안 된다. 그들은 거친 언어가 오히려 미디어의 관심을 끌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격한 표현은 ‘사이다 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지지자들에게 통쾌함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상대 진영을 향한 공격적 언어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배경에는 팬덤 정치와 SNS 정치가 자리하

고 있다. 과거에는 정책과 가치가 정치적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정치적 판단을 좌우한다.

정당보다 정치인 개인의 영향력이 커진 탓이다. 팬덤 정치에서 상대 진영은 적(敵)으로 인식된다. 적에게는 대화보다 공격이 앞설 수밖에 없다. 과장된 표현과 조롱, 낙인과 음모론은 지지층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SNS 알고리즘은 이러한 경향을 증폭한다.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클릭과 공유를 얻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쇼츠와 같은 짧은 영상은 맥락을 지우고 감정만 남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제도다. 영국 의회가 의원들이 칼을 뽑아도 닿지 않을 거리만큼 떨어져 마주 앉도록 설계된 것은 토론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정치에서 갈등과 비판은 불가피하다. 이견과 경쟁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판과 혐오, 논쟁과 조롱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상대를 비난하는 목소리보다 국민을 설득하는 언어가 많아질 때 정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언어의 품격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런말저런글

불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한 글에서 ‘즐길거리’라는 말을 보았다. ‘즐기다’를 ‘즐길’로 만들어 명사 ‘거리’를 꾸민 것이니 ‘즐길 거리’ 해아 어법에 맞는 다. 그것을 알지만 한 단어인 양 붙여 써서 칸을 줄여 경제적 글쓰기를 한 것으로 읽힌다. 사진을 뒤져보면 불거리, 읽을거리, 먹을거리는 표제어(올림말)로 올라 있다. ‘즐길거리’라고 안 될 게 있나 하고 붙여 썼겠다 짐작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거리’ 낱말의 쓰임은 다양하다. 먼저, ‘즐길 거리’ 할 때 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쓰이는 대상이나 소재를 말한다. 마실 거리, 토론할 거리, 토의할 거리, 양보할 거리, 설득할 거리, 주장할 거리, 이야기할 거리 등 술한 표현이 가능하다. 일부 명사 뒤에 붙여 써서 재료, 대상, 소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국거리 반찬거리 격정거리 근심거리 일거리 글거리 논문거리가 그런 예다. 주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제시한 시간 동안 해낼 만한 일을 뜻할 때도 있다.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일을 종일 하고 있구나”라는 용례가 있다. 주로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제시한 수가 처리할 만한 것임을 보이기도 한다. “그 과일은 한 입 거리밖에 안 된다”라거나 “그 일은 한 사람 거리의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2011년 표준어로 인정된 ‘먹거리’와, ‘먹을거리’가 미묘하게 다른 것은 따로 공부할 거리가 된다. 먹거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먹는 온갖 것’이고, 먹을거리는 ‘먹을 수 있거나 먹을 만한 음식 또는 식품’이다. 전통 먹거리, 먹거리 장터, 먹거리 문화라 쓴다. 전통 먹을거리, 먹을거리 장터, 먹을거리 문화는 좀 어색하다. 장 보러 나가 먹을 거리를 사 온다고 하지 먹거리를 사 온다고는 잘 안 쓴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뭐가 하고 묻지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는 뭐가 하고 묻지는 않는다.

고형규 기자

글로벌

멀어지는 비핵화...서울·평양서 같은날 다른 목소리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남북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함께 6자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공을 들였던 기억은 이제 ‘북핵 일지’에 기록으로만 남을지 모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파악됐다. 양국 정상은 주권·안전, 발전의의 수호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북 하루 전 북한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변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의 정상 외교 행보도 비핵화보다 전략적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이 미국의 면전에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러시아와는 결이 다른 의기투합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재역’을 요청했으나, 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얼마나 역할을 해줬는지 의문이다.

정상외교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개된 내용으로는 뒷전으로 밀렸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시각과 비슷한 시점에 서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오후 피터 셀네비 스웨덴 한반도특사를 접견하며 비핵화만 앞세워서는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현실과 마주하고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법과 맥을 같이하는 언급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서방 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에 대사급 상주공관을 두고 외교체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이익대표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정 장관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시간표가 있는 과제가 아니라 방향만 남은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를 향해 ‘핵보유국 지위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허공에 메아리로 사라지는 허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예

기다. 국제 조약인 핵확산방지조약(NPT)이 핵보유국으로 공인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과 함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학자들의 논문이나 인공지능(AI) 검색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핵 문제를 ‘흐르는 강물’에 맡길 수는 없다. 남북 대화 단절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면 후회라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미래가 달린 비핵화를 목표로 뛰다가 ‘비공인 이점표’를 보고 돌아설 수는 없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MEDIA CENTRAL NEWS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범수
편집국장 홍말벗 광고국장 송동윤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연합뉴스, 코리아타운 데일리, Washington Post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상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정복’에서 ‘공존’으로... 암을 대하는 인류의 자세가 바뀐다

오랫동안 인류에게 암(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전장(戰場)의 적군이었다. 암 선고는 곧 삶의 종말을 의미했고, 의학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암세포의 전멸’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암 학회들이 던진 메시지는 우리의 고정 관념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다. 의학계는 이제 암의 완전한 제거라는 불가능한 환상에서 벗어나, 생명 연장과 삶의 질을 유지하며 암과 평화롭게 지내는 ‘공존(Coexistence)의 시대’를 선언하고 있다.

인류의 항암 잔혹사는 제1세대 ‘화학항암제’와 함께 시작됐다. 잡초를 죽이기 위해 논밭에 독한 농약을 뿌리듯, 온몸의 세포를 무차별 공격하던 시절이었다. 시스플라틴(Cisplatin)이나 도세탁셀(Docetaxel) 같은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 세포(모근 세포, 점막 세포, 백혈구 등)까지 무차별로 파괴했다.

15년 전 유방암 치료를 받았던 김영희(가명·62) 씨는 “항암 주사를 맞고 돌아온 날 밤이면 변기를 붙잡고 온종일 위액을 쏟아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배개를 적실 때마다, 내가 암 때문에 죽는 건지 약 때문에 죽는 건지 분간이 안 갔다”고 회상한다.

치료 과정이 암보다 더 고통스럽다던 이 비극의 시절을 지나, 2000년대 들어 인류는 2세대 ‘표적항암제’라는 무기를 쥐게 되었다.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과발현된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 ‘핀셋 타격’하는 방식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기적이라 불리는 글리벡(Gleevec)을 시작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타그리소(Tagrisso)와 알렉센사(Alecensa)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임상 3상(ALEX 연구) 최종 데이터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 변이(ALK 양성)를 가진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알렉센사를 1차 치료제로 투여했을 때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은 무려 81.1개월(약 6년 9개월)에 달했다. 과거 4기 폐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던 진보다.

그러나 표적항암제 역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암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회로를 찾아내 약에 대한 ‘내성(Resistance)’을 키워낸다는 점이었다. 평균 1~2년이 지나면 약효가



독한 항암제 시대를 지나, 내 몸 면역으로 치료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글로벌 암 학회가 선언한 새로운 암 치료 시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떨어지고,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표적을 찾아 헤매야 하는 끝없는 추격전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학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찾아낸 돌파구는 ‘시선의 전환’이었다. 암세포를 직접 죽이려는 강박을 버리고, 환자의 몸속에 이미 존재하는 면역 체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3세대 ‘면역항암제’의 등장이다.

암세포는 교묘하게 외투를 바꾸어 입으며 우리 몸의 면역세포(T세포)를 속인다. 암세포 표면의 PD-L1이라는 단백질을 T세포의 PD-1 수용체와 결합시켜 “나는 정상 세포니 공격하지 말라”는 거짓 위장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키트루다(Keytruda)나 오피비(Opdivo) 같은 면역관문억제제는 바로 이 기만전술을 차단한다. 눈이 가려졌던 T세포가 비로소 암세포의 정체를 깨닫고, 내 몸속 교유의 면역 군대가 스스로 암을 찾아내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인류는 암세포를 향해 유도미사일을 날리는 최첨단 기술인 ADC(항체약물결합체)까지 완성해냈다.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가는 항체(Antibody)에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Payload)을 링커로 결합한 형태다. 최근 유방암과 위암 치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엔허투(Enhertu)와 삼중 음성유방암의 대안으로 떠오른 트로델비(Trodeltay)가 대표적이다. 트로델

비의 경우, 치료가 극히 까다로운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유럽종양학회(ESMO)의 항암제 가치 평가 등급에서 최고점인 5점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 의학계가 주목하는 4세대 ‘대사항암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암세포의 ‘밥줄’을 끊는 전략을 쓴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달리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도하게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특이한 대사 경로를 가진다. 구충제 기반 성분에서 착안해 암 줄기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차단하는 니클로사마이드(Niclosamide) 기반 복합제(HAB-SON01 등)는 최근 글로벌 임상 시험에서 암의 전이와 증식을 원천 봉쇄하는 탁월한 대사 차단 효능을 입증하며 학회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정상 세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굶겨 죽이는 부드럽고도 치명적인 공존의 기술이다.

의학 기술은 눈부시게 도약했지만, 환자들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버티고 서 있다. 바로 천문학적인 약값, 이른바 ‘재정적 독성’이다.

인류의 생명을 구한다는 최신 신약들의 가격표는 상상을 초월한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3주 제제 기준 1회 투여 리스트 가격이 약 \$12,272달러로 6주 제제 기준으로는 무려 \$24,544에 달한다. 1년 동안 이 약을 고

스란히 제값 내고 맞으려면 약 2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든다. 기적의 유방암 치료제라 불리는 엔허투 역시 한 달 약값이 만 달러를 가볍게 상회한다.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나와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은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냉혹한 미국 의료 시장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비용을 미국 건강보험은 얼마나 감당해주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커버는 가능하지만, 환자가 어떤 보험 조합을 가졌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갈린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시니어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경우를 살펴보자. 키트루다나 엔허투처럼 병원 원내나 클리닉에서 의사의 감독하에 정맥 주사(IV)로 투여받는 대다수의 최신 면역·표적항암제는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파트 B는 환자가 연간 디덕터블(Deductible·2026년 기준 \$283)을 충족하고 나면 정부가 치료비의 80%를 부담한다. 문제는 나머지 20%의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본인 부담금)가 환자의 몫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지출 최대 상한선(Out-of-pocket maximum)

이 없다. 즉, 20만 달러짜리 항암 치료를 받으면 보충 보험(Medigap)이 없는 환자는 매년 수만 달러를 생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충 보험이 없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는 키트루다 1회 주사당 약 \$1,300~\$2,100을 본인 주머니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다.

반면,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파트 C)나 직장 대형 사보험 가입자들은 연간 본인 부담 최대 상한선(Out-of-pocket limit)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제조사가 제공하는 코페이 어시스턴스(Co-pay Assistance)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의 약 38%는 암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똑같은 암에 걸려 똑같은 약을 맞더라도, 들고 있는 보험 카드의 종류에 따라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다.

여기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통과로 인해, 알약 형태로 집에서 복용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메디케어 파트 D 영역)의 경우 환자의 연간 out-of-pocket 지출 한도가 \$2,100 선으로 대폭 제한되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이 생겨난 셈이다.

‘암 정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차갑고 호전적이다. 깃발을 꽂고 적을 전멸시켜야 끝나는 잔인한 전쟁 같다. 하지만 오늘날의 의학이 도달한 종착지는 뜻밖에도 매우 다정하다. 암을 무조건 칼로 도려내고 독약으로 태워버리는 대신, 환자가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경제적 파탄 없이 통증 없는 하루를 더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보험 제도의 틈새를 메워가며 암세포의 기세를 꺾어놓은 채, 내 몸의 온기와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현대 의학이 정의하는 진짜 ‘정복’의 의미다.

그러므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무균 상태의 절망이 아니라, 상처와 슬픔,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을 안고도 오늘을 살아내는 숲의 지혜다. 인류는 암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시키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암에게 빼앗겼던 환자들의 ‘소중한 하루’와 ‘가족의 평온’을 되찾아오는 데는 분명 성공해가고 있다. 가장 독한 질병의 시대를 지나, 가장 다정한 의학의 시대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시 설

미·이란 종전 합의, 전세계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 되길

지구촌을 전쟁의 공포와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발발 106일 만에 극적인 종식을 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했고, 이란 외무부 역시 전선에서의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선언했다.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공식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기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전 세계 석유 수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은 전 세계인에게 커다란 안도감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종전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중동 정세의 돌과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지난 2월 말 공급이 시작된 이래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키고 고물가에 신음하던 세계 경제에 무거운 짐을 지워왔다. 특히 세계 원유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물론, 미주 한인 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주체들에게 커다란 유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엔진을 가동하고 석유가 흐르게 하라”는 선언은 멈춰 섰던 글로벌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

이다. 이번 합의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파키스탄 등 국제사회의 끈질긴 물밑 중재와 함께, 대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미·이란 양국 지도부의 실리적이고 결단력 있는 용기가 맞물린 결과다. 전쟁의 장기화는 그 누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양국이 극단적 대립 대신 ‘협상을 통한 평화’를 선택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 군사작전 종료는 피로 얼룩졌던 중동 땅에 마침내 안보와 안정을 가져다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19일 서명식 이후에도 기뢰 제거 등 실무적인 과제와 오랜 불신의 벽을 허무는 후속 조치들이 남아있다. 어렵게 마련된 평화의 불씨가 온전히 피어나기 위해서는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 종전 소식은 고국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미주 한인 동포 사회의 비즈니스 환경에도 긍정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명백한 호재다. 이번 위대한 합의가 단순한 적대 행위의 중단을 넘어,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글로벌 경제 부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북한 짝사랑’으로 ‘두 국가론’ 안주하는 통일부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북 ‘선제적 평화 노력’을 자화찬하며, 북한의 무응답에 “고뇌와 답답함이 깊어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춰선 안 된다”며 기존의 유화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무시 속에서도 여전히 환상적 평화주의와 짝사랑식 대화 구걸에 매달려 있는 통일부 수장의 안일하고 왜곡된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 장관의 발언 중 가장 심각한 대목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위태로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변한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 장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발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며 통일 지우기

에 나서자, 이를 비판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두 국가론’ 프레임이 그대로 수용하고 안주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밤”이라며 지치지 않고 안내하겠다는 정 장관의 다짐은 낭만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외교·안보 정책은 감성적인 희망회로나 당위성에 갇혀서는 안 되며, 철저한 힘의 우위와 냉혹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상대방은 핵무력을 불사하며 적대감을 노골화하는데, 우리만 ‘평화적 공존’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외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도박판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거나 억지 주장을 대변하는 부처가 아니다.

정동영 장관은 실패한 유화책과 위험한 ‘두 국가론’ 수용 태도를 버려야 한다. 확고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당당한 대북 원칙론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중앙 시론

사법 정의의 시계는 누구를 위해 도는가

국가 권력의 이동은 사법 정의의 잣대마저 뒤흔드는 마법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기묘한 불균형의 심연 속에 있다. 과거 권력의 과오를 향한 추궁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으나, 현재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사법적 잣대는 한없이 둔탁하고 관대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극명한 온도 차이는 그들이 부르짖는 ‘사법 정의’가 과연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정파적 실리를 도모하기 위한 ‘선택적 엄숙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행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정 질서를 혼든 수괴와 공범들을 단죄하는 데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근거 적용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고 있다.

범치 국가에서 초법적 권한 행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단죄의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서사는 정점(頂點)에 선 권력자를 넘어 하부 조직으로 내려갈수록 과도한 잔혹함을 띤다. 민주당과 수사 기관은 당시 명령을 전달 받고 집행 유예의 공간이 전무했던 군·경의 장·차관급 인사는 물론, 작전 수행의 실무를 맡았던 중간급 간부들에게까지 전방위적인 사법 처벌의 율가미를 씌우고 있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군인과 공무원들의 항변은 사법 정의라는 거대한 단두대 앞에서 맥없이 잘려 나간다. 전직 권력을 향한 칼날은 이토록 촘촘하고 매서우며, 아주 미미한 가담의 흔적조차 용납하지 않는 ‘현미경식 추궁’의 전형 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엄격하고 결벽에 가까운 법치의 서사는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정지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구속 사안에 직면해 기소되었던 혐의를 안은 채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을 두고, 민주당은 전직 권력에 들이댄 잣대의 절반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현역 의원 105명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기다리기는커녕, 입법부의 권력을 남용해 기소 자체를 무효로 돌리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조작 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에 대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자당의 공소 취소 압박에 힘을 실었다.

과거의 실책에는 하급 공무원의 책임까지 살살이 파헤치면서, 현직 최고 권력자의 중대 범죄 혐의에는 망원경마저 거꾸로 든 채 사법부의 저울을 통째로 뒤집고 있는 것이다. 퇴임한 권력에게 들이대는 엄숙한 법리가 왜 살아있는 권력의 면전에서 이토록 쉽게 굽어지고 굴절되는가.

범조계와 학계에서는 입법부가 특정 피고인의 공소 유지 여부에 개입하고 특검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가로막으려는 행위가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처사라고 경고한다. 전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명분이 ‘헌법 수호’라면, 현직 대통령의 사법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려는 행위 역시 ‘헌법 파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법치와 정의는 시간에 따라, 혹은 권력의 이동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과 그 수하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 준엄함이 진심이라면, 현재 청와대에 앉아 있는 최고 권력자의 과거 과오와 사법적 혐의 역시 법원이라는 공정한 저울 위에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과거를 단죄하는 칼날이 매서울수록, 현재의 허물을 덮으려는 방패는 비겁하고 초라해질 뿐이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계속해서 침해하려 든다면, 대중은 그들이 외치는 ‘정의 구현’을 한낱 권력을 쥔 자들의 오만한 ‘승자독식의 보복극’으로 기억할 것이다. 법의 저울추가 권력의 유무에 따라 춤을 추는 순간, 민주주의의 심장은 멈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미디어 중앙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포토

일자리 찾아 나선 중장년층

16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빌딩 3층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6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전면 벽돌,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멋진 경치, 넓은 부엌과 거실,
나무 마루, 넓은 안방과 화장실, 위크아웃 베이스먼트,
넓은 DECK, FENCE 있는 뒷마당, 많은 VISITOR PARKING 공간, AS IS CONDITION

\$739,000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엔드 유닛, 가라지 타운하우스, 집 전체 리모델링,
탁트인 고급 부엌과 새 주방용품, 새 지붕, 새 창문,
새 나무마루, 새 HVAC, 새 페인트,
남향 밝은 DECK과 FENCE

\$500,000



Sold

특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5%,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안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Sold

특점 Annandale 오피스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예난데일 중심가

\$28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춘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미디어 건강

THE KOREA TODAY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MEDIA CENTRAL NEWS Wednesday, June 17 2026 C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중법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간접흡연, 암 유발 중금속카드뮴 체내 축적 높일 수 있어”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된 성인은 암과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Cd)의 혈중 농도가 비노출자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A&M대 노태현 교수팀은 16일 바이올로지컬 트레이스 엘리먼트 리서치(Biological Trace Element Research)에서 미국 성인·아동·청소년 5천여명을 대상으로 담배 연기 노출과 카드뮴 농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된 성인은 혈중 카드뮴 농도가 비노출자보다 약 1.5배 높았다고 밝혔다.

논문 교신저자인 노 교수는 “이는 간접흡연이 암 등과 관련된 독성 중금속 카드뮴의 장기적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호흡기 건강뿐 아니라 유해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축적을 줄이기 위해서도 담배 연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드뮴은 담배 연기에 포함된 독성 중금속으로 체내에 축적되며, 신장암과 폐암, 전립선암 등의 위험을 높이고, 신부전과 골격 손상,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연합뉴스

미 연구팀, 성인 3천600여명 분석 “간접흡연자, 혈중 카드뮴 1.5배 높아”

연구팀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2015~2020년 자료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천380명과 성인 3천 686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의 카드뮴 농도를 측정했다.

또 니코틴이 체내에서 대사돼 생성되는 혈청 코티닌(cotinine) 농도를 이용해 담배 연기 노출 정도를 ‘노출 없음·경미한 간접흡연 노출·높은 간접흡연 노출·적극적 흡연’으로 구분한 뒤 카드뮴

농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인의 경우 담배 연기에 많이 노출될수록 혈중 카드뮴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극적 흡연자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간접흡연 비노출자보다 3.2배 높았고, 높은 간접흡연 노출군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변 카드뮴 농도는 적극적 흡연자가 비노출군보다 1.57배 높았으나

간접흡연 노출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혈액과 소변의 차이에 대해 혈중 카드뮴은 최근 간접흡연 노출을 반영하는 반면 소변 카드뮴은 신장에 장기간 축적된 카드뮴을 반영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뮴은 신장에 최대 30년까지 축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아동과 청소년에서는 담배 연기 노출 정도에 따른 카드뮴 농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카드뮴이 평생에 걸쳐 신장에 축적되고 나이가 들수록 배출 능력이 감소하는 특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카드뮴 농도가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인종적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도 더 높은 카드뮴 노출 수준을 보였다.

논문 제1 저자인 난디타 사커 연구원(박사과정)은 “간접흡연도 성인의 체내 독성 카드뮴 농도를 유의하게 높인다”며 “이런 격차는 흡연 습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불평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루 2시간 이상 SNS 사용 청소년, 우울 증상 위험 높아”

하루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사용 시간이 적은 때보다 1년 뒤 우울 증상과 낮은 삶의 만족도(웰빙)를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머독 어린이연구소(MCRI) 난디 비자야쿠마르 박사팀은 12일 호주 의학저널(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서 멜버른 지역 청소년 1천200여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해 청소년기의 높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향후 정신건강 문제 위험의 소폭 증가와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자인 수전 쇼어 교수는 “이 결과는 SNS 사용이 모든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나이에 적합한 이용 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부모 지침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두 요인의 관계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전향적 종단연구인 아동-성인 전환 연구(CATS)에 참여한 멜버른 지역 청소년 1천239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했다.

참가자들이 12~18세 시기에 보고한 하루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13~19세 시기의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웰빙, 자해 경험 자료를 분석해 소셜미디어 사용량과 이후 정신건강 상태의 연관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 초과한 그룹은 하루 1시간 미만 사용 그룹에 비해 다음 연례 조사 시점에서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일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구독신청 703-281-9660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 메디케어
여행자 보험, 메디케이드
각종 의료보험, 캐시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통증치료
진료 과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신경발달 치료	근육 통증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보박스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렌리 지역]

LDL 높아도 젊으니 괜찮다?...645만명 12년 추적해보니

20·30대 '나쁜 콜레스테롤' 160 이상이면 심혈관질환 위험 62% 상승
복부비만·흡연 겹치면 위험 더 커져...“젊을 때부터 혈관 관리해야”

“아직 젊은데 콜레스테롤까지 먹어야 하나요?”

외래 진료실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다. 실제로 현재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전략은 주로 40세 이상 성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LDL(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적극적인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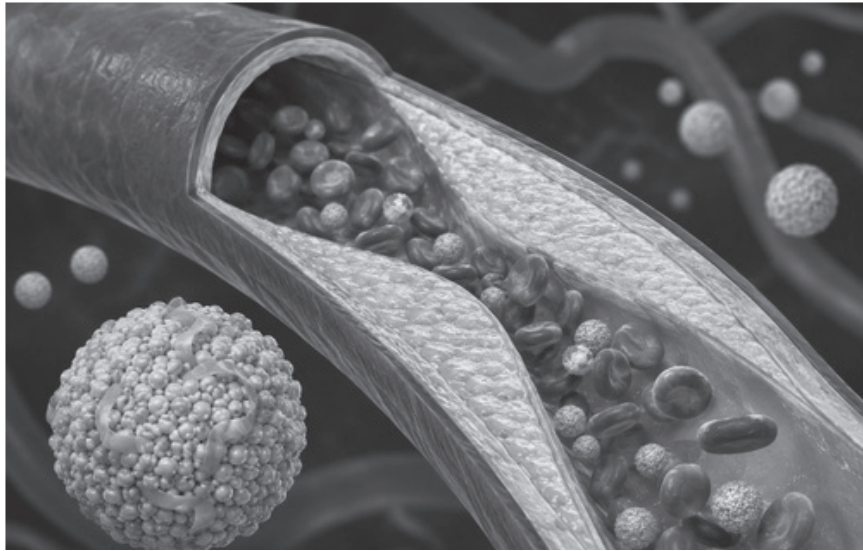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젊은 나이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최신호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유빈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9~2012년 건강검진 당시 심근경색과 뇌졸중 병력이 없었던 20~39세 성인 645만8천6명을 대상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평균 12.6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대상자 가운데 LDL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18.9%였고, 160mg/dL 이상인 사람도 4.5%에 달했다. 20~39세 성인 4명 중 1명 가까이가 이미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LDL 수치를 갖고 있었던 셈이다. 분석 결과 연구 기간에 심근경색 4만7천107건, 뇌졸중 2만8천536건 등 총 7만3천897건의 복합 심혈관질환이 발생했다.

이중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가장 낮았던 LDL 콜레스테롤 구간은 약 90~110mg/dL였다. 이 수준을 넘어설수록 위험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130~159mg/dL인 경우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은 기준 군보다 12% 높았다.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이면 위험 증가 폭은 47%에 달했다.

질환별로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인 젊은 성인은 심근경색 위험이 62% 높았고, 뇌졸중 위험도 22% 증가했다. LDL 콜레스테롤이 130~159mg/dL인 경우에도 심근경색 위험은 16% 높았다. 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젊을 때부터 혈관 벽에 손상을 일으키고, 그 영향이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콜레스테롤]

[자료 이미지]

더 우려스러운 건 다른 대사 위험 요인이 동반하는 경우였다. 연구팀은 복부비만, 흡연,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등의 위험 요인을 함께 분석

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 폭이 이들 집단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복부비만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인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 상승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예컨대 복부비만이면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이면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기준 군보다 78% 높았고, 심근경색 위험은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유빈 교수는 “높은 LDL 콜레스테롤에 오래 노출될수록 혈관 손상이 누적돼 향후 심혈관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아직 젊으니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생활습관 개선 등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약물 치료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조기 심혈관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mg/dL 이상이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0·40男 비만을 50% 넘어 가장 심각

성인 3명중 1명 '비만'

한국 성인의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해 3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높았고, 지역 격차는 최대 2배에 달했다.

14일 질병관리청이 2015년~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 연간 23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성인 비만율은 34.4%였다. 성인 비만율은 2015년 26.3%, 2018년 31.8%, 2021년 32.2% 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비만은 키와 몸무게로 산출한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 25kg/m² 이상으로 정의된다. 전국 17개 모든 광역 시·도에서 성인 비만율이 증가한 가운데, 2024년 전남과 제주에서 각각 36.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남은 2015년 25.4%에서 10년 새 11.4%포인트(p)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와 달리 세종의 성인 비만율은 같은 기간 26.2%에서

29.1%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며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시군구 단위 성인 비만율은 2022년~2024년 최근 3개년 평균값으로 좁혀 산출했다. 그 결과 충북 단양군 44.6%, 강원 철원군 41.9%, 충북 보은군 41.4% 순으로 높았다.

성인 비만율이 낮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 22.1%, 대전 서구 23.1%, 대구 수성구 23.7% 순이었다.

전국 최고 수준인 충북 단양군과 최저 수준인 경기 과천시의 격차가 2배였다.

성별, 연령 등에 따라라도 성인 비만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0%로 남성 비만율이 여성보다 1.8배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 비만율이 각각 53.1%, 50.3%로 크게 높았고 70세 이상에서 26.0%로 가장 낮았다.

남성 50대는 41.6%, 20대 39.9%, 60대 34.0% 등이다. 반면 여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만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70세 이상에서 27.9%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여성 60대는 26.6%, 50대 23.2%, 40대 21.4%, 30대 21.1%, 20대 16.8%였다. 또한 남성은 고소득·고학력·사무직군에서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 사무직이 47.0%, 대졸 이상 44.9%,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44.5% 등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은 농림어업직군 비만율 30.2%, 중졸 이하 30.7%,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8% 등으로 저소득·현장노동직군의 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남성은 혼자 살 경우(39.9%)보다 2인 이상 가구(41.7%)에서 비만율이 더 높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달리 1인 가구(23.6%)의 비만율이 2인 이상(22.9%)보다 높았다.

질병청은 “비만은 전국적인 공중보건 과제로, 지역 격차 심화 양상과 성별에 따른 상반된 양상이 나타난다”며 “앞으로 정책이 있어 인구집단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 단위로 세분화한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혈액검사로 조기 치매 예측 가능성 확인”

국립보건연구원



[혈액 검사]

[연합뉴스TV 캡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5세 이전 조기 치매환자 코호트 분석을 통해 혈액검사 지표로 조발성 치매의 특성과 질병 진행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발병 나이가 만 65세 이전인 조발성 치매 환자, 조발성 경도인지장애 환자 및 가족을 장기간 추적하는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 연구(연구 책임자 부산대병원 신경과 김은주 교수)를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환자 245명과 전두측두엽치매 77명 등 총 322명을 약 2년간 추적 관찰하며 혈액 검사 결과와 인지기능 변화, 임상 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는 혈액 내 바이오마커 수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임상 증상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적 관찰 기간 주요 바이오마커 수치가 모두 증가해 조발성 알츠하

이머병의 질병 진행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반면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에서는 일부 바이오마커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성을 보였으나,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전두측두엽치매가 서로 다른 혈액 바이오마커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전두측두엽치매에서 혈액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성과”라며 “향후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예측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과목

- 척추질환
- 좌골신경통
- 오십견
- 관절염
- 요통
- 소아과
- 부인과
- 생리불순
- 생리통
- 입덧
- 두통
- 위장질환
- 면역질환
- 한약처방 조제
- 불임치료
- 종풍
- 안면 신경마비
- 비염
- 알러지 질환
- 수술 및 사고 후 통증
- 노인성 변비
- 질환성 비만
- 추나 요법
- 전기침 요법
- 부항 및 운동 처치 요법
- 테이핑 요법
- 한국산 수제 우황청심환

문의·예약 703.642.6066

웹사이트 hanilacu.com



중의학 박사 연태흠 원장

- 상해중의약대학 본과 및 박사 졸업
- 상해 서광의원 정현외과 4년 연수
- 한국 한일한의원 부원장 역임
- 중국 국가급 명의 석사상과 사사

교통사고 보험

- CareFirst
 - United Healthcare
 - Anthem
 - Aetna
 - Humana
 - Medicare Advantage Plan
 -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 Veterans Affairs
- ※ 보험 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년을 이어오는 신실함
한일한의원

7345 Mcwhorter Pl. Suite 101,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워터 센터(한미타워)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플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미타워(한미)와 챔플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K의약품' 싹쓸이에 외국인 의료소비 2천500억 역대 최대

외국인 소비 석 달 연속 2천억원 돌파...중국인 관광객 636억원 최대 피부재생·여드름 크림·안티푸라민 등 인기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역 공화철도선 출입구 근처의 한 약국.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뜬금없이 '무인 환전기' 한 대가 눈에 띄었다.

통상 올리브영이나 무신사처럼 유명 쇼핑몰 안팎에서 볼 수 있던 기기지만, 약국을 찾는 외국인 손님이 꾸준히 늘면서 최근 설치됐다고 한다.

약국 곳곳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상품을 설명한 문구가 보였다.

이 약국의 약사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인공눈물과 안티푸라민, 여드름 크림 등 올리브영에서 팔지 않는 의약품을 사러 온 해외 관광객의 발걸음이 부쩍 잦아졌다"며 "제품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거 주세요'라고 하거나, 수십만원씩 사가는 '큰 손' 외국인도 종종 본다"고 말했다.

올해 5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부분에 지출한 금액이 역대 최대인 2천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인기 진료 과목인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K-의약품' 입소문을 타고 약국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피부와 성형외과 약국

14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의료 소비액은 2천511억5천578만원으로, 전월보다 0.5%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의료 소비액이란 방한객이 의료 분야에 결제한 신한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이들의 지출한 전체 액수를 추산한 것이다.

의료 소비액은 지난 2월 1천96억여원에서 3월 2천44억여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난 뒤 4월 2천498억여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명동 지하상가의 한 약국에서 외국인들이 가방에 구매한 상품을 넣고 있다

이어 지난 달 역대 처음으로 2천500억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4.6% 불어났다.

의료 소비액이 3개월 연속 2천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별로는 중국 636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462억여원), 일본(329억여원), 대만(297억여원), 싱가포르(145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피부과가 57.8%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18.0%), 약국(12.9%), 대학·종합병원(5.3%), 치과(3.4%), 안과(1.4%) 순이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88.4%), 부산(5.0%), 경기(3.1%), 제주(2.0%) 등이었다.

"40만원씩 쓸어담아가기도"

이처럼 의료 소비액이 급증한 이유는 그간 병원에 밀려 점유율 5%대에도 미치지 못했던 약국의 성장이 꼽힌다.

작년 1월만 해도 피부과(50.8%)와 성형외과(27.3%)에 이어 4.9%에 그쳤던 약국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올해 1월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역대 최대 점유율(12.9%)을 기록했다.

지난달 외국인 의료 소비건수도 비중에서도 약국은 역대 최대인 69.8%까지 올랐다. 의료 관광객이 결제한 건수 10건 중 7건은 약국에서 이뤄졌던 의미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있는 한 대형 약국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대형 쇼핑몰 두 개에 피부 재생 크림이나 의료용품으로 분류된 마스크팩 등을 가득 담은 외국인을 비롯해 영상 전화를 걸어 상품대를 비추면서 모국의 지인에게 원하는 상품을 물어보는 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민주콩고 에볼라 사망 발병선언 한달만에 181명

하루 만에 확진 72명·사망 32명 ↑ 의사회 "대응이 확산 속도 못 따라"

중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지난달 15일 에볼라 발병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누적 확진자 800명, 사망자는 180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민주콩고와 우간다 외 다른 나라까지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최초 발병지로 알려진 민주콩고에서는 북동부를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민주콩고 언론공보부에 따르면 민주콩고에서는 지난 13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78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72명이 늘어나 지금까지 일일 증가치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보건행정구역도 진원지인 북동부 이투리주와 북키부주에서 각각 1곳씩 늘어 3개 주, 31곳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 사망자도 181명으로 하루 전보다 32명이 늘었다. 역시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치명률도 23.1%로 높아졌다. 이번에 유행하는 분디부조형 에볼라 바이러스 치명률로 알려진 30~50%에 접근



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에볼라 사망자 시신을 옮기고 있다 [AFP-연합뉴스]

한 셈이다.

확진자가 늘어나며 접촉자에 대한 추적률은 56.5%로 감소했다.

완치된 환자는 56명으로 늘었다.

우간다 정부는 지난 4일 누적 확진자 19명, 사망자 2명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10일간 자국 내 추가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유행하는 에볼라라는 대표적인 에볼라 바이러스인 자이르형이 아닌 분디부조형이다.

2007~2008년 우간다 분디부조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발견된 이번이

세 번째 유행이지만, 자이르형과는 달리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이번 유행 초기 분디부조형 에볼라 진단 장비도 충분하지 않아 확진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이날 성명에서 "한 달이 지났지만 에볼라 대응 노력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실제 확진자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케이트 화이트 민주콩고 내 MSF 긴급의료 조정관은 "아무도 이 질병이

정확히 어디서 확산하고 있는지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며 "이투리주의 대부분 치료소는 수용 능력을 넘었고 많은 환자가 말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접촉자 다수는 식별·감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콩고 내 발병지역 상당수가 반군 활동 지역이어서 적시에 진단과 치료 등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화이트 조정관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서도 진단과 감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진단 시설과 키트가 확충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접근이 제한됐고 결과 화신이 크게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0년간 아프리카에서는 1만5천 명이 에볼라로 사망했다. 2014년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유행으로 1만1천명이 숨졌으며, 민주콩고에서는 2018~2020년 유행으로 2천300명이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이 지역에서 진단과 추적, 치료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프리카연합(AU) 산하 국제보건기구인 아프리카 질병 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CDC)도 전문가 파견 등 지원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뇌동맥류 치료 2만건"

서울아산병원은 15일 국내 처음으로 뇌동맥류 치료 2만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뇌혈관팀은 1989년 첫 수술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뇌동맥류 치료 총 2만874건을 기록했다. 2019년 이후로는 매년 1천건 이상 치료를 해왔다.

뇌동맥류 치료 2만건을 넘긴 것은 국내 처음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뇌 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파열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지만, 일단 파열되면 뇌출혈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파열 후 응급치료를 물론, 아직 파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활성화하면서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통해 터지기 전의 뇌동맥류를 일찍 발견하고,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1989~1993년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가 전체의 4.4%(21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처음으로 90%를 넘어선 데 이어 최근에는 93~94% 수준으로 올랐다.

Care People Home Health

Care People Home Health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13 ~ 7/17 → 전화 예약 필수!

구인 - 센터빌 오피스 Accounting / Bookkeeping (FT)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시민 4명 중 1명은 “술 전혀 안마신다”...음주 빈도도 뜸해져

2025 서울시 먹거리조사
맵고 짠 국물·단 간식 매일 먹어

서울시민 약 4명 중 1명 꼴로 지난 1년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서울시가 공개한 ‘2025 서울시민 먹거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소주 7잔이나 맥주 5캔’, 여자는 ‘소주 5잔이나 맥주 3캔’ 이상의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23.7%가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년의 같은 응답 비율(21.6%)보다 증가한 수치다.

술을 마시는 시민들의 음주 빈도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한 달에 2~4번 이상 마신다는 응답은 23%, 일주일에 2~3번은 12.5%, 일주일에 4번 이상은 1%로 모두 전년(각각 31.5%, 13.4%, 1.4%)보다 줄었다.

반대로 한 달에 1번은 22.6%, 한 달에 1번 미만은 17.3%로 모두 전년(각각 19.8%, 12.2%)보다 늘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3천2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식이 느는 경향도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의 17.3%가 채식을 한

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22년 5.8%에 불과했으나, 2023년 16%, 2024년 15.8%에 이어 2025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가끔 고기도 먹는 ‘플렉시테리언’이 12.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유일하게 전년(7.6%)보다 늘었다. 반대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건(1.1%)과 유제품·난류·채소만 먹는 락토-오보(1.6%), 붉은 고기를 피하는 폴로-페스코(2.3%) 모두 전년(각각 1.5%, 3.3%, 3.4%)보다는 감소세를 보였다.

채식하는 주된 이유는 체중 조절(65%)과 건강관리(61.6%)가 꼽혔으며 모두 전년(각각 46.9%, 46.2%)보다 크게 늘었다.

윤리적 목적보다 건강 목적의 채식이 늘어나면서 비교적 유연한 형태의 채식 비중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응답은 65.9%로 전년(67.4%)보다 악화했다. 이는 다이어트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 것으로, 서울시민 3명 중 1명 꼴로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 이유로는 ‘식품을 사거나 조리할 시간이 없어서’란 응답이 59.3%로 가장 많았고 ‘주변에 원하는 식품이 없어서’(29.5%)가 뒤를 이었다.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맥주박람회&드링크 서울’에서 부스 관계자가 맥주 시음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추세는 대부분의 성별과 연령, 계층에서 유사했으나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돈이 없어서’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면과 찌개, 국물 떡볶이 등 맵고 짠 국물음식을 하루 1번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를 기록했다. 전년(28.9%)과 비교해 조금 더 높아졌다.

믹스커피와 가당 음료, 사탕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을 하루 1번 이상 먹는다고 답한 비율은 37.3%였다. 전년(39.5%)보다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시는 이런 음식을 ‘절제가 필요한 식품군’으로 분류했지만, 서울시민 셋 중 하나는 이를 매일 먹는 셈이다. 서울시민 먹거리조사는 시민의 먹

거리 전반을 진단하고 맞춤 정책을 펴기 위해 서울시가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달달달 원정대’, 식품진열대 주요 위치에 건강식품을 놓는 ‘우리아이 건강키움존’, 외식 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통쾌한 한끼’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청소년 흡연 “미디어 흡연장면 볼수록 흡연에 관대”

중고등학생 3천400명 설문조사
“흡연장면 ‘쿨한 이미지’와 결부”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을 자주 본 청소년일수록 흡연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청소년연구원 최신호에 실린 ‘미디어 흡연 장면 노출이 청소년의 흡연 용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이 작년 8~9월 중고등학생 3천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 경험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성인 흡연율(17.9%)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청소년 흡연율은 남학생(5.9%)이 여학생(2.2%)보다, 고등학생(6.4%)이 중학생(2.2%)보다 높았다.

최초 흡연 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이거나 중학교 1학년생일 때 처음 흡연해봤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1.25%, 고등학생이 1.04%였



서울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모습 [연합뉴스]

다. 이는 청소년 흡연의 저연령화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미디어를 통해 흡연 장면을 자주 본 청소년일수록 흡연을 용인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자주 본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44.3%, ‘아니다’는 응답은 30.4%를 차지했다. 자주 이

용하는 미디어는 유튜브,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에 자주 노출된 청소년들은 흡연하는 등장인물을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흡연 장면에 노출되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할 때 흡연을 용인하는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은 등장인물의 반항적이고 ‘쿨한’ 이미지와 결합하기도 한다”며 “청소년들은 이런 장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소년이 미디어 속 흡연 장면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며 “청소년 흡연 예방정책은 단순히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유급 사유 1위는 ‘정신건강’

‘학교 부적응’ 보다 많아

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작년 1학기에만 1천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는 유급당한 학생들의 사유 1순위로 꼽힐 만큼 학교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2025년 1학기에 입원한 전국 초·중·고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 질환을 이유로 입원한 사람은 모두 1천268명으로 집계됐다.

한 학기로 기간을 한정된 것인 만큼 작년 한 해로 범위를 넓히면 최소 2천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 병상이 부족해 입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1천268명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현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설명했다. 학급별로는 중학생이 6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569명, 초등학생은 97명이었다. 지역별

로 보면 경기도가 266명으로 최다였다. 그다음은 서울(169명), 경남(141명), 부산(128명), 대구(97명), 인천(87명) 순이었다.

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학생들은 장기 결석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의 한 학기 평균 결석일은 31.5일이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으로 인한 결석일은 평균 20.9일이었다. 55.3%(701명)는 결석일이 30일 이하였지만, 60일을 넘긴 학생도 8.8%(111명)에 달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수업일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는 학생들의 유급 원인 1순위로 꼽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작년 1학기 초·중·고 유급 학생은 총 576명으로, 이 가운데 123명(21.5%)의 유급 사유가 ‘정신건강’이었다. 학교 부적응(114명), 유학(99명),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재학(60명) 등 다른 사유보다 많았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BTS, 부산서 13주년... “여러분이 가장 큰 생일 선물”

아미(팬덤명) 여러분이 즐겨주시는 모습이 저희에게 가장 큰 생일 선물이에요!” (진)

13일 오후 어둠이 드리운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미, 생일 축하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13주년 기념일에 부산에서 약 5만5천명의 ‘아미’들과 뜻깊은 ‘생일’을 자축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후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 부산 공연에서 “13년을 (멤버들과) 같이 보냈는데,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이 있어서다. 여러분 덕에 오랜 시간 좋게 잘 버틸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아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면서도 “우리 방탄소년단 7명은 한국인이다.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내 나라, 내 땅, 내 도시에서 공연하는 게 가장 즐겁다. 그만큼 여러분도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고양에서 ‘아리랑’ 투어의 뜻을 올린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국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이 부산에서 공연을 연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입대 전 마지막 콘서트였던 ‘Yet To Come in Busan’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방탄소년단은 전날에 이어 양일간 총 11만명에 달하는 아미를 만났다. 부산은 멤버 지민과 정국의 고향이기도 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 공연에 초등학교 은사를 초청한 지민은 “앞으로도 같이 가 봅시다”라며 “더 좋은 무대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3년 6월 13일 거친 콘셉트의 힙합 아이돌로 데뷔했다. 이들은 ‘학교 3부작’과 ‘화양연화’로 대표되는 청춘 시리즈,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시리즈 등을 통해 10대를 대변하고, 시대 현실을 파고들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나아갔다.

일곱 멤버의 음악과 메시지가 호응을 얻으면서 전 세계 아미의 규모도 점점 커졌고, ‘다이너마이트’(Dynamite) ‘버터’(Butter) 같은 영어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하면서 방탄소년단은 ‘21세기 비틀스’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리더 RM은 “연습실에서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 - 데뷔곡)을 할 때



그룹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콘서트

[빅히트뮤직 제공]

이틀간 월드투어 부산 공연... “내 나라, 내 땅서 노래하는 게 가장 즐거워” 고향 찾은 지민·정국 “부산 반갑습니데이”...진 “부산 아-호!” ‘아리랑’ 폐창에 축제 분위기...“13년 주마등처럼, 앞으로도 같이 가 봅시다”

가 옛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며 “예전과는 많은 게 달라졌다. 한국에서 열심히 하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가사에 영어도 많아졌다. 그 사이에 K팝이라는 산업도 거대해졌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매직 샵’(Magic Shop)을 부르다 보니 1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며 “저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항상 최선을 다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부디 오래도록 함께해달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날 드넓은 스타디움 한 가운데에는 ‘아리랑’ 투어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X자 무대와 대형 상부 LED 전광판이 설치됐다.

공연 전에는 수목화 같은 영상과 국

악이 흘러나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국악의 비트가 갑자기 빨라지자, 5만5천명이 한목소리로 내뿜는 “BTS!”라는 외침이 거대한 메아리가 스타디움을 휘감았다.

곧이어 랩을 든 댄서가 등장해 무대로 내달렸고, 쇠붙이 소리를 연상시키는 신나는 비트의 ‘홀리건’(Hooligan)과 함께 공연이 시작됐다.

방탄소년단은 전원 핸드 마이크를 활용해 생동감 있는 라이브를 들려줬다. 5집 ‘아리랑’ 발매 이후 3개월이 지나 팬들도 익숙해진 듯 신곡 폐창도 고양 콘서트와 비교해 한층 커졌다.

막내 정국은 ‘에일리언스’(Aliens)와 ‘달려라 방탄’까지 세 곡을 내리 부르

고서 “요! 부산 반갑습니데이”라며 “오늘도 정말 많은 분이 오셨다. 신나게 놀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정겨운 부산 사투리를 섞어 첫인사를 건넸다.

지민은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제가 태어난 고향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5집 ‘아리랑’에 수록된 신곡 무대를 중심으로 ‘페이크 러브’(FAKE LOVE), ‘마이크 드롭’(MIC Drop), ‘불타오르네’ 등의 기존 히트곡까지 두루 선보였다. 특히 웅장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노멀’(NORMAL)을 앨범에 수록된 버전과 달리 한국어로 불러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이홉은 ‘노멀’을 부르면서 “부산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한국어 버전이었다”며 “굉장히 특별하다”고 말했다.

음반명이자 공연명인 ‘아리랑’에 걸맞은 한국적인 색채는 앞선 고양과 일본·미국 투어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재현됐다.

‘데이 돈트 노 바웃 어스’(they don’t know ‘bout us)에선 전통 말을 재해석한 이미지가 스크린에 표출됐고, ‘메리고라운드’(Merry Go Round)에선 댄서들이 커다란 흰 천을 사용해 전통 승무에서 영감을 얻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1부와 2부 사이 감각적인 영상이 흘러나오는 동안 빨간색과 파란색 의상을 입은 댄서들이 무대 위에서 커다란 태극 무늬도 만들어 시선을 끌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새 앨범 1번 트랙에 실린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였다. 고양 공연과 달리 커다란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흥을 돋웠다. 노래 후반부에는 5만5천명이 폐창으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라고 민요 ‘아리랑’을 불렀다.

방탄소년단은 곧이어 국악을 접목해 ‘조선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고 불린 히트곡 ‘아이돌’(IDOL)을 부르며 약 50명의 댄서와 함께 경기장 트랙을 돌아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말행진은 ‘보디 투 보디’를 부르기에 앞서 걸그룹 리센느의 유행어에 빗대 “부산 아-호!”라며 “이렇게 말하니 신세대 같다”고 능청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팬을 향한 솔직한 마음을 담은 신곡 ‘컴 오버’(Come Over), 글로벌 히트곡 ‘버터’(Butter) ‘다이너마이트’(Dynamite) 등을 부르며 ‘원 모어 나이트’(One More Night)와 ‘인투더선’(Into the Sun)을 마지막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방탄소년단은 양일간 공연장을 찾은 11만명의 관객 전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친필 카드, 양산, 투명 가방 등이 포함된 선물 꾸러미도 증정했다.

공연장을 찾은 아킬라(34·남아프리카 공화국), 루이지(18·독일), 아킬라(33·프랑스) 씨는 “이 특별한 날에 아미들과 함께하게 돼 매우 감정이 북받쳐 온다. 부산에 오게 돼 행운”이라며 “과거에 멤버들은 자신에 대해 매우 엄격(Strict)하게 보였다. 그런데 ‘2.0’을 선언하고 나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도 당연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최만순의 약이 되는 K-푸드 죽순, 솟아오를 때를 아는 채소

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땅은 스스로 갈라지며 길을 낸다. 그 틈에서 밤사이에도 눈에 띄게 자라나는 것이 죽순이다. 옛사람이 '우후죽순(雨後竹筍)'이라는 말로 변화와 생명의 상징을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죽순은 빨리 자라기만 하는 식물이 아니라, 땅속에서 오랫동안 힘을 기르다 때가 되면 한 번에 솟아오르는, 준비와 폭발이 함께 담긴 식재료다.

◇ 몸의 열을 내리는 채소

한의학적으로 죽순은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달면서도 약간 쓴맛을 함께 지닌 것으로 본다. 동의보감에는 죽순이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 소갈을 멎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번열을 풀어주고 기의 순환을 돕는다고 기록돼 있다.

본초강목에도 어린 죽순이 불면증을 다스리고 답답함을 없애며 눈을 맑게 하고 해독과 장 기능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이런 성질 때문에 옛 의서들은 죽순을 폐열로 인한 기침, 위열로 인한 속쓰림, 장열로 인한 변비처럼 몸속에서 위로 치솟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 내리는 식재료로 다뤘다. 다만 죽순은 속을 차게 하고 기를 동하게 할 수 있어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하며, 소화기 잘 안되거나 비위가 약한 사람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전해진다.

옛 의서들이 죽순을 위 폐 대장경으로 들어가는 식재료로 본 것은 흥미롭게도 현대 영양학의 설명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이 있다. 위는 음식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고, 폐는 기운을 퍼뜨리는 곳이며, 대장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통로라는 점에서, 죽순이 이 세 길을 동시에 다스린다는 표현은 곧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내보내는' 양생의 기본 원리를 압축한 것이다.

실제로 죽순은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이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죽순은 100g당 약 20~30kcal로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 기능을 개선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죽순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10~15% 정도 들어 있는데, 이 가운데 변비 개선에 효과가 큰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끌어당겨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세포를 자극해 장운동을 촉진하며, 중금속 등 노폐물을 함께 배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죽순에는 다량의 칼륨이 들어 있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타이로신·글루탐산·폴린 등의 성분과 비타민 B·C가 풍부해 피로 해소에도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또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인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죽순을 먹고 있다.



죽녹원의 죽순과 대나무 숲 (담양군 제공)

물질과 철분 염산이 함유돼 있어 노화 방지와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죽순의 흰 분말, 즉 타이로신 결정은 신경 전달물질의 전구체로 작용해 집중력과 의욕을 높이는 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옛사람들이 죽순을 먹고 "마음이 맑아진다"고 했던 표현이 단순한 비유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몸이 가벼워지면 생각이 가벼워지고, 장이 비워지면 마음도 비워진다는 것—음식이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약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 수산(草酸) 때문에 데쳐 먹어야 하는 이유

죽순은 그 성질이 분명한 만큼 다루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다. 죽순에는 수산(옥살산) 성분이 들어 있어 반드시 데쳐서 사용해야 뽕은맛과 자극을 줄일 수 있다. 옛 조리법에서 쌀뜨물에 삶고 오랜 시간 물에 담가뒀던 것도 자연의 성질을 사람의 몸에 맞게 조율하는 지혜였다.

우리 식문화에서 죽순은 죽순밥, 죽순탕, 죽순나물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특히 죽순과 육류를 함께 조리하는 전통은 차가운 성질의 죽순을 따뜻한 육류가 보완해 영양의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단순한 맛의 조합을 넘어선 '몸을 위한 설계'였다고 볼 수 있다.

죽순은 또한 정신적 상징으로도 쓰였다. 땅속에서 묵묵히 힘을 기르다 때가 되면 한 번에 솟아오르는 모습은 군자의 덕을 닦았다는 평을 받았고, 맹종(孟宗)이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해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일화는 효의 상징으로 전해진다.

◇ 손자병법으로 본 죽순 요리

손자병법의 '작전(作戰)'의 장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말한다.

오래 끌지 말 것, 낭비하지 말 것, 빠르게 끝낼 것.

전쟁이 길어지면 군량이 바닥나고 백성이 지치며 나라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이다. 승패는 전장이 아니라 이미 준비와 운용 단계에서 갈린다는 뜻이다.

이 원리를 죽순에 비유해본다. 죽순은 땅속에서 오랜 시간 준비하다가 때가 오면 단숨에 솟아오른다. 망설임 없는 그 속도가 바로 손자가 말한 '속전속결'의 기운이다. 오래 머뭇거리면 죽순은 질겨지고, 제때 거두면 가장 부드럽다. 자연은 이미 작전의 법칙을 알고 있는 셈이다.

양생의 관점에서 죽순은 '지체하지 않는 음

식'이다. 성질은 미한하고 맛은 담백해 몸속의 열을 빠르게 식히고 막힌 기운을 아래로 내려준다. 위로 치솟는 화(火)를 오래 붙잡아 두지 않고 곧바로 흘러보내는 것—이것이 작전의 핵심인 '머무르게 하지 않는 함'이다.

죽순 채취 무침은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이다. 데쳐서 바로 무쳐 먹는 이 요리는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신선한 기운을 그대로 살린다. 아삭하게 부서지는 식감은 몸속에 쌓인 답답함을 단숨에 풀어준다. 오래 끓이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 작전은 간결할수록 강하다는 원리와 같다.

죽순밥은 쌀과 함께 익혀내 죽순의 맑은 기운을 밥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음식이다.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모여 힘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샐러드로 먹는 죽순은 기름과 열을 최소화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다는 손자의 원칙과 다르지 않다.

볶음 요리는 죽순을 고기나 버섯과 함께 볶아 차가운 성질을 중화하고 맛을 깊게 만든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동맹과 협력의 작전인 셈이다.

찜 요리는 은근한 열로 시간을 들이되 낭비하지 않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느려 보여도 내부에서는 치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완성되는 준비와 닮았다.

통조림 죽순은 신선함은 떨어지지만 저장과 유통이라는 장점을 얻는, 전쟁의 보급로 확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만 편리함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갓 올라온 죽순의 생명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손자가 경계한 '형식이 본질을 이기게 두지 말라'는 가르침과 통한다.

◇ 쌓임을 풀어주는 음식

우리 몸도 전쟁과 다르지 않다. 병은 쌓이면서 시작된다. 열이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고, 감정이 쌓인다. 죽순은 이 쌓임을 풀어주는 음식이다. 장을 움직여 배출을 돕고 열을 내려 마음을 편하게 한다.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이유다.

옛사람들에게 죽순은 맛있는 봄나물이었고, 시기와 속도를 가르치는 자연의 스승이었다. 너무 이르르면 덜 익고, 늦으면 이미 굳는다. 인생도 건강도, 타이밍을 놓치면 본래의 힘을 잃는다.

손자는 전쟁을 말했지만 그 본질은 삶에 있다. 오래 끌지 말고, 버려야 할 것을 쥐고 있지 말며, 흐르게 하라. 죽순 한 접시는 그 모든 말을 대신한다. 죽순을 먹는다는 것은 계절의 맛을 즐기는 일을 넘어, 삶의 속도를 되찾는 일이다.

최만순 음식 칼럼니스트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홈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 페어팩스시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US오픈 골프 18일 개막...세플러,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

매길로이·캡카 등 세계 골프 강호들 총출동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임성재·김주형 출전

남자골프의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제126회 US오픈이 오는 18일 저녁(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사우샘프턴의 시네콧 힐스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다.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아마추어 풀퍼 19명을 포함해 세계골프 톱랭커 156명이 출전해 시네콧 힐스 골프클럽의 난코스에서 실력을 겨룬다.

상금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는 총상금 2천150만달러(약 325억2천만원), 우승 상금 430만달러(65억원)였다.

출전 명단에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다. 셰플러는 메이저 대회 4승을 포함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0승을 올렸지만 아직 US오픈 우승 트로피가 없다.

셰플러의 US오픈 최고 성적은 2022년 대회에서 거둔 공동 2위였다. 셰플러가 올해 US오픈에서 우승하면 타이

거 우즈(미국), 잭 니클라우스(미국), 게리 플레이어(남아공), 진 사라젠(미국), 벤 호건(미국),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에 이어 7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이 된다.

이달 초 시네콧 힐스에서 연습라운드를 한 셰플러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모든 골퍼 선수의 꿈"이라며 "내 조국 미국에서 열리는 US오픈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대회 마지막 날인 21일은 셰플러의 만 30세 생일이다. 셰플러의 강력한 우승 경쟁자는 세계랭킹 2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다. 이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매길로이는 시네콧 힐스에서 설욕을 노린다.

2011년 US오픈에서 우승한 매길로이지만 2018년 시네콧 힐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컷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US오픈의 또 한명의 강자는 브룩스 캡카(미국)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대회를 연속 제패했고, 특히 2018년 우



스코티 셰플러 [연합뉴스]



로리 매길로이 [연합뉴스]



브룩스 캡카 [연합뉴스]

승 당시 대회가 시네콧 힐스였다. 하지만 캡카는 US오픈을 한주 앞두고 열린 PGA 투어 캐나다 오픈 마지막 날 손가락에 이상 증세를 느껴 기권했다.

캡카가 US오픈 개막 때까지 어느 정도 정상 컨디션을 회복할지도 관심사다. 이밖에 LIV 골프에서 활약하는 윤람(스페인)과 브라이슨 디샬코(미국)를 비롯해 2025년 우승자 J.J.스핀(미국), 45세 나이에도 여전히 실력을 유지하는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이번 시즌 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리며 무서

운 상승세를 탄 캐머런 영(미국)이 출전에 우승컵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와 임성재, 김주형이 출전한다.

김시우는 이번이 10번째 US오픈 출전으로, 가장 좋았던 성적은 2017년 공동 13위다.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내 고서도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김시우는 메이저 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8번째, 김주형이 다섯번째 출전이다. 김주형은 2023년 대회에서

공동 8위에 오르는 성적을 남겼고, 임성재는 2020년 대회 22위가 최고 성적이다.

한편 시네콧 힐스 골프클럽이 US오픈을 유치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2018년 대회 때 캡카의 우승 스코어가 1오버파 28타였을 정도로 고난도 코스였다. 그린 스피드는 빠르고 경사가 있는 편이라 핀이 어려운 위치에 꽂힌다면 선수들이 공략하기 힘들다.

또한 US오픈 코스답게 러프는 두껍고 깊게 세팅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마다 감소한 프로야구 관중...이번엔 다를까

14경기 중 12경기 매진

야구인들이 긴장하는 시기가 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축재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기간이다.

월드컵은 대회 기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상대적으로 프로야구에 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KBO리그 관중 수는 월드컵이 열린 해에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KBO리그 총관중은 239만4천570명으로 전년도인 2001년(299만1천64명)의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일 월드컵이 열린 2006년에도 관중 수는 304만254명에 그쳐 2005년(338만8천349명)의 89.7%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월드컵은 프로야구 관중 증가세를 잠시 주춤하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열렸던



응원하는 프로야구 관중들 [연합뉴스]

2010년 KBO리그 관중은 592만8천626명으로 2009년(592만5천285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1년(681만28명)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도 비슷했다. 2014년 KBO리그 총관중은 650만9천915명으로 2013년(644만1천84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5년에 736만530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15년엔 구단 수와 경기 수가 늘어난 점도 관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월드컵이 열렸던 2018년엔

807만3천742명이 야구장을 찾아 전년도(840만688명)보다 약 33만명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4년 연속 이어졌던 관중 증가 추세도 멈췄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의 여진이 남아있는 데다 대회가 겨울에 열려서 KBO리그 일정과 겹치지 않았다. 월드컵 기간에 한정해 살펴봐도 KBO리그 관중 감소 경향은 뚜렷하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기간인 그해 6월 12일부터 7월 12일 KBO리그 경기당 평균 관중은 8천987명으로, 그해 한 경기 평균관중(1만1천144명)의 80.64% 수준에 그쳤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기간엔 경기당 평균 관중이 1만448명으로 시즌 평균(1만1천301명)의 92.45%를 기록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경기당 평균 8천697명이 야구장을 찾아 시즌 평균 관중(1만1214명)의 77.55% 수준에 그쳤다.

'눈찧기' 멕시코 남성, 직책서 사퇴

가해 남성 "한국인에 사과"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체코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응원 중인 여성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이른바 '눈 찧기' 제스처를 취한 멕시코 남성이 여론의 거센 못매를 맞은 후 자신이 맡고 있던 협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양손으로 눈을 옆으로 길게 찧는 '눈 찧기'는 아시아인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다.

14일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극전사를 응원하기 위해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을 찾은 한국인 여성 인플루언서 윤모 씨는 자기 SNS에 경기장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윤씨 바로 뒷자리에 앉은 한 멕시코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눈 찧기' 포즈를 취하며 비웃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냈고, 누리꾼의 추적 끝에 이



멕시코 남성의 인종차별 제스처

남성이 올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마라몬테스 할리스코주 토목·지형 기하학 엔지니어 협회(CITGEJ) 회장으로 밝혀졌다.

과문이 검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베르날 마라몬테스 회장은 SNS를 통해 사과 영상을 올리며 "외국인이 멕시코를 찾았을 때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랐는데, 나는 정반대 행동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당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한국인 공동체, 그리고 나의 행동에 실망한 멕시코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혔다.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ellow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학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교통사고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6월 구인 광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미디어 중앙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창고 사무실 RENT

사무실 딸린 창고 같이 쓰실분
위치: 매나사스 (센터빌에서 15분)

창고(1700sf)
사무실(800sf)
*사용 가능합니다

(202)515-6746
(월~금: 9am~12pm)
office@ecinest.net

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하실 여자 직원 구함

유 경험자, 무 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Stafford, VA

(540)368-9699

메디케어(Medicare) 전문가 Paul Kim(수봉)

“복잡한 메디케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5세 (1961년생) 신규 가입부터 플랜 변경까지, 메디케어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 나에게 꼭 맞는 파트 C(우대 플랜)와 파트 D(처방약 플랜)는 무엇일까?
- 정부 보조 혜택(수수료 면제 등)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 수많은 플랜 중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딱 맞춘 최적의 선택을 찾아드립니다.

체크 리스트

1. 올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카드를 처음 받으시는 분
2. 현재 가진 플랜의 치과, 안경, 약 보조 혜택을 더 키우고 싶은 분
3. 다른 주에서 이사 오셨거나 처방약 변경이 필요한 분

“알기 쉬운 메디케어, 무료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703-223-6961** (편하게 전화 주세요)
*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 정부 보조 프로그램 상담 가능
* 개인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미디어 중앙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미디어 중앙으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함께 세일즈 하실 팀원 구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 LED 교체 프로그램
-메릴랜드 BGE, PEPCO 서비스 지역
-기본적인 영어 소통 가능자
-Sales Training 제공 및 Transportation 지원 가능
-연 10만불 이상 충분히 가능
문의 : 410-599-7000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구인

베이비 씨터 구함
입주해서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분
근무지: 피츠버그, PA
문의 : 703-967-3963

한식당 헤반 (HYEBAN)에서 직원 모집
-주방 쿡/헬퍼/웨이츄리스 (숙식제공)
Tel: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리스 (풀/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443-243-8429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 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중고 매매/기타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케이 퍼플에서 간호사 교육합니다
기간: 7/13-7/17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싱글/타운/방렌트

BWI 공항 근처 싱글홈 지하 전체 렌트
출입문 별도
240-393-5530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인터넷, 침대, 가구완비
301-538-1438

저먼타운 싱글홈 위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부엌, 거실, 욕실, 출입문 별도
\$1,4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버튼스빌 싱글홈 3층 렌트
(콜롬비아에서 15분, 엘리컷시티에서 20분
거리) 방2, 화1.5, 욕실, 주방, 새페인트, 새
가전제품, 프리파킹, 모든것 포함 \$1,900
443-983-8100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방 렌트
Arundel Mills Live Casino 뒷편
프라이빗 부엌, 세탁실, 인터넷, 유포,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금연 필수, 남자분 환영
804-381-1552

부동산 매매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사업체 매매

** 미장원급매
5일 영업, 월 순수익 \$6,000
알링턴 VA, 좋은 동네, 발전 가능성 많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 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수 있는 자리,
리스 space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 컨비니언 스토어
\$1.95M 코너, 단독 빌딩 유니언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 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골프 등,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주 6일 오픈, 월 순수익 2만 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 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 순수익 3만 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 완벽한 설비 시설
-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 703-678-9790
영어 : 703-499-2466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 월 1만 5천 순수익
- 매매가 15만 + 인벤토리
- 메니지먼트 가능
- 피츠버그, VA
문의 :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 고정 단골 손님 많음
- 월세 \$2500, 월 순수익 \$6천 이상
- PT 일하실분 구함
문의 : 703-907-9541 (문자 요망)

40년 성업중인 테일라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문의 : 703-937-7261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 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 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 sf
문의: 804-519-1918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문의 : 804-519-1918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케어피플 홈헬스에서 직원 구함
- Accounting / Bookkeeping (FT)
- 센터빌 오피스
-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치과 조무사, 리셉셔니스트 구함
월, 화, 목, 금 8시 - 5시 근무
무경험자 시간당 \$20
naturadent@gmail.com

첼트리 롯데 마트안에 위치한 금산 인삼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구합니다.
- 판매할 여자 직원
- 주 40시간, 주말 가능 하신분
문의 : 201-923-3886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e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acct2014a@gmail.com

첼트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 경력 무관
- 이중 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 건강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 account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luit.com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cd.edu
www.cccd.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
info@goodpeopleusa.org

참여행사 미동부 투어 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 센터빌 지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rn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 571-389-4415
이력서 :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 571-389-4415
이력서 :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다. 이중 언어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함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 dceyclinic@yahoo.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문 한식

헤반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 주방 쿡 / 헬퍼
- 웨이츄레스
- 숙식 제공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매매

40년 성업중인
테일러 샵

- ★ 은퇴관계 매매
- ★ 좋은 조건
- ★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직원 구함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Fair Oaks Mall내 New Macy's 옆에 위치

703.691.1993

미디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7일 수요일 미디어 중앙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니스트(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universal.com

홀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급,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페어팩스 Sushi Friends Hashi 에서
서버 구합니다.
영어필수 (공고 친구도 환영)
703-628-9168 (문자 요망)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허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파타임
▶571-991-4172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클리너에서 함께 일하실 카운터
직원 구합니다. (풀/파타임)
571-244-4912

기타구인

베이비 씨터 구함
입주하셔서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분
근무지: 피츠버그, PA
문의: 703-967-3963

스파에서 바다 필링 하실분 구함
-여성분,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가능)
-스테포드, VA
문의: 540-368-9699

가사도우미 급구 - 장기 근무 환영
오리·세탁·청소 등 기본 가사
오후 12시~7시
McLean 깨끗한 가정집
안정적 장기근무 / 매우 좋음
연락: 703-795-1896

밀워키 캐비넷 공장에서 목수 구합니다.
덜레스 공항 근처(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애건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문의: 571-660-8182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비엔나 타운홈 \$3,100
방3, 화장, 전체 마루, 옥튼 하이스쿨, Mosaic
EL, RT 123/29/50/88
▶571-239-6054 (문자)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홈 \$4,000
방3, 화장2.5, 차고2, 2019년, 7월1일 입주
가능, RT 66/50/286/29
▶571-239-6054 (문자)

센터빌 싱글홈 지하전체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모두 독립직업, 주방, 세탁 설비
완비,

올 리모델링, 주차공간 충분, 팻가능
571-214-0404

페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장,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장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이트
이트한부엌 (그레닛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
킹다수, 교통 편리
▶703-477-3114

콘도 렌트

업그레이드된 밝고 환한 콘도 \$1,700
방1, 화장, 새 나무 마루, 넓은 리빙룸, 나무가
보이는 경치, 편리한 1층, 새 페인트, 넓은 새
발코니, 물값 & Gas값 포함, 교통 편리
Falls Church, 애난데일 10분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렌트 \$2,000
방2, 화장, 나무마루, Granite Counter Top,
탁트인 구조,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넓은 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 콘도, 롯데 마
트 근처, 교통 편리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장,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장,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방 렌트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간단 취사,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애난데일 CVS 뒤 싱글홈 원룸스타일 방 렌트
출입문 별도, 샤워실, 냉장고, 인터넷, 가구,
취사가능, 파킹넵, 금연자, 즉시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웃슨 하이스쿨 근처 큰 싱글홈 베이
스먼트 전체 렌트 \$1,925
큰 방1, 화장, 거실, 부엌, 가구 완비,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703-362-8790

애난데일 한강 식당 근처 큰 싱글홈 방들
렌트, 교통 편리, 주차넵
703-395-4380 (메세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홈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가능, 직장인/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시루앞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가능,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973-8123

게인스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워크아웃, 화장, 풀베스, 리모델링된 주방,
새 세탁기/건조기, 새 페인트, 새 플로어,
여성분 환영

703-501-4478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개인 주차
571-232-6052

헤이마켓도미니언 벨리 리젠시 골프장안에
있는 싱글홈 2층 전체 렌트
방1, 리빙룸, 풀베스, 골프장 회원 가능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516-242-8466

애난데일 방하나 렌트합니다.
간단 취사, 유포, 가구 포함
703-677-1889

센터빌 (New Braddock Road) 타운홈 방하
나 렌트,
남자분 환영, 저녁 6시 이후 전화요망
703-606-005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방하나 렌트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욕실 별도,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30-7121

센터빌 극장 근처타운, 방, 화장실, 마루, 파
킹, WIFI, 학생/여성분 환영
571-239-6054 (문자)

애난데일 싱글홈 방 렌트,
495, 노바 & 조지메이슨 6분, 가구 일체,
인터넷, 금연자, 여자분 환영, 주차넵
571-205-0903

로튼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전체 렌트
방2, 거실, 부엌, 화장, 세, 1-95 1마일 거리, 가
족 환영, 출입문 별도
703-774-4939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
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K마켓 뒤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넵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하나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장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렌
트, 엔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센터빌 타운홈 작은방 임대 \$700 (유포)
문의: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사무실/점포 렌트

창고/사무실 렌트
매나사스에 있는 사무실 딸린 창고 같이 쓰실
분, 센터빌에서 15분 거리
창고 1700sf, 사무실 800sf 사용 가능
전화: 202-515-6746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지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컨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장,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센터빌 타운홈 \$739,000
엔드 유닛, 2 car garage 전면 벽돌,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멋진 경치, 넓은 부엌과 거실, 나무마루, 넓은 안방과 화장실,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넓은 펜스 있는 뒷마당, Visitor parking 다수, As is condition
2. 애난데일 오피스 매매 \$280,000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 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703-813-8949

1. 페어팩스 뉴타운 홈 매매
2. Langley high school 학군 지역 주택 매매 (703) 677-1889

1. 센터빌 중학교 근처 싱글 \$1,050,000
방3, 화장, 5 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55,000
방7, 화장3.5, 워크아웃 부엌, 차고 2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트 리저리타운 \$850,000
방3, 화장3, 차고3
▶703-489-6926

1. 헌트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장, 차고1, 새 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앗간/반찬/잔치음식 전문점

oh! Market 낙원떡집

케이팅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oming Soon

- 각종 떡, 단채 도시락, 김밥 주문 받습니다.
- 김밥 단채주문 환영합니다.
- 각종 반찬 만들어 드립니다.
- 참기름 짜드립니다. (기계 있음)

• 각종 행사 • 백일/돌잔치/생일 음식
• 잔치 음식 • K-Food & Hibachi Food
• 반찬 전문

"매장 식사 가능"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282.com

571-723-0446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2.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 \$390,000
방2, 화2, 콜린 파워 초, 센터빌고, 교통중심
3. 애쉬번 렉서리타운 \$935,000
방4, 화3.5, 차고2, 최고 학교, 2015년,
3,660sqft, RT50/66/267, 널레스공항,
교통요지
4. 알링턴 아미네이비 콘도 \$345,000
방1, 화1, 2000년, 700sqft, 디씨 근접 교통
요지
▶571-239-6054

1. 브리스토타운홈 \$689,000
Victory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편리,
6/25일에 마켓에 올라올 예정
2. 애난데일 싱글홈 \$700,000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땅의 집, 생활 가능하
나 As-Is Condition으로 매매
3. 비엔나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703-625-9909

클럽톤 콘도 \$379,000
호수를 품고 있는 멋있는 단지, 방2, 화2, 완전
히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
분 거리
▶703-813-8949

1. 센터빌 타운홈 \$595,000
방3, 화3.5, 2 assigned parking
지붕, 부엌(2024), 욕실(2026), HVAC 등
업그레이드된 집
2. 클럽톤 싱글홈 \$1,120,000
방4, 화3.5, 집 전체 수리 많이 된 집
3.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1 + 덴,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 마루,
넓은 텍, 가스/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703-919-0472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교
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
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703-231-5572

1. 엘리컷시타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사업체 매매

**미장원 구매
5일 영업, 월 순수익 \$6,000,
알링턴 VA, 좋은 동네, 발전 가능성 많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 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리스 스페이스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테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컨비니언 스토어
\$1.95M 코너랏, 단독 빌딩 유니언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 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골프 등,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6일 오픈, 월 순수익 2만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 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 순수익 3만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 완벽한 설비 시설
-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703-678-9790
영어: 703-499-2466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 월 1만5천 순수익
- 매매가 15만+ 인벤토리
- 매니지먼트 가능, 피터스버그 VA
(문의)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 고정 단골 손님 많음
- 월세 \$2500, 월 순수익 \$6천 이상
-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콰티코 VA, 군 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 sf \$1.1M
2. 페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sf
임대 완료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sf, 1층 대로변, 포토맥야드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매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스태포드)
아웃수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문의: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구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타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테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중고 매매 / 기타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 등등
301-801-9921

케이 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7/13 - 7/17 전화 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폴업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사반, 성인 취미반, 특
수 야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밀워크 캐비닛 공장에서 목수 구인
덜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703-835-0945
(문의) 한국어: 703-678-9790
영어: 703-499-2466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샤인 건축
카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텍,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
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
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환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인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움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 가스 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지원 방법: Sdmech.office@gmail.com
Phone: 703-447-4683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타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선타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성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 드레스 & 텍스도 대여
-웨딩 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열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
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 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홀스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 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팎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페
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 이
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 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 보험 확실한 세관 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 이사, 포
장 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 및 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P.C 집수리 센터
집 안팎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미디어 중앙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Homes Plumbing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License / Insurance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미디어 중앙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블라인드 / 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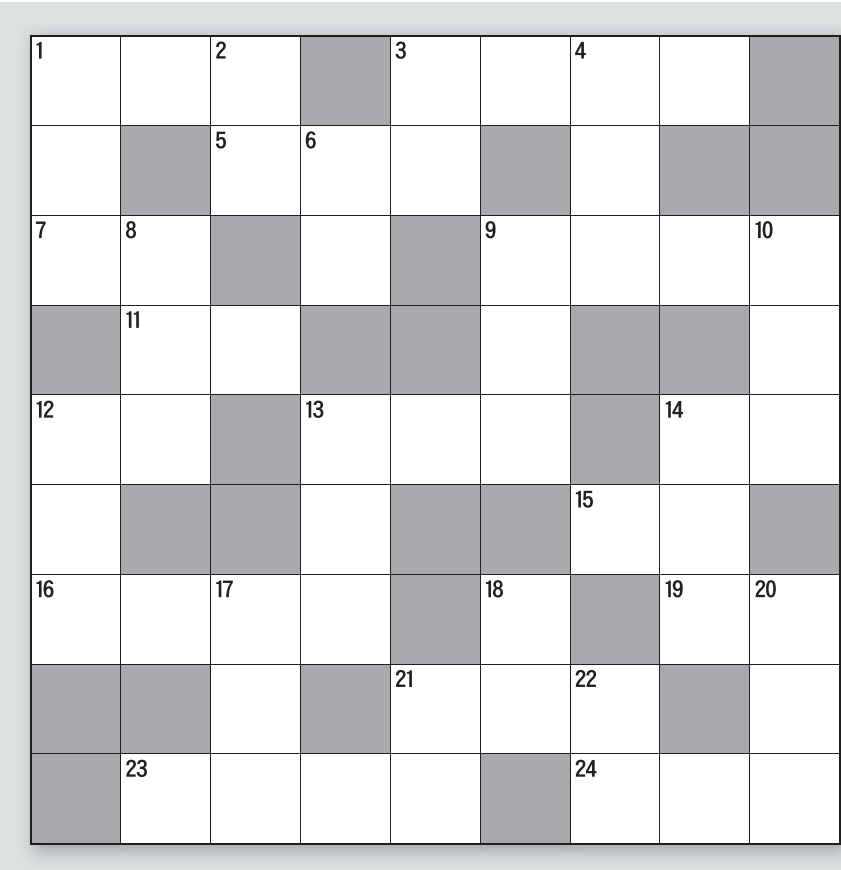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낱말퀴즈 & 스도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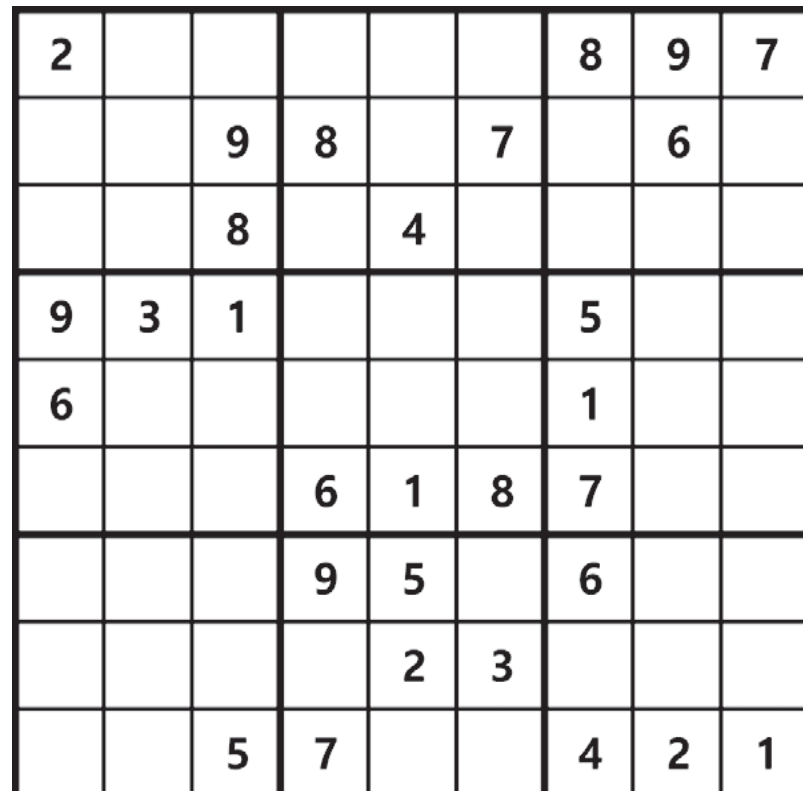
가로열쇠

(1)같은 중심을 가지며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 (3)각각의 집마다. 또는 모든 집에. □가□□ (5)두 젓 사이의 가운데 (7)여든여덟 살을 달리 이르는 말 (9)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움. □□초□ (11)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원형질로 된 매우 작은 생활체 (12)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느끼는 맛에 대한 감각. 한국 사람의 ~에 맞는 음식 (13)언행이 어설피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 아무렇게나 날림으로 하는 일. 태평소 (14)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 산후 ~ (15)매우 좁고 작은 개울. ~ 치고 가재 잡는다 (16)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거점없이 넓고 큰 기계. □연□□ (19)땅에 두드려 박는 기둥이나 몽둥이 (21)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는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 (23)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쉬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불□□□ (24)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리도록 만든 한 벌의 그릇. 사기나 놋쇠 따위로 만들며, 주발·대접·쟁반·탕기·조침보·보시기·종지 따위를 기본으로 하죠

세로열쇠

(1)소금에 절인 통무에 끓인 소금물을 식혀서 붓고 심심하게 담그는 무김치 (2)글음이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새 (3)배와 목 사이. 복사꽃 피면 ~ 아프다/속생각 너무나/한 없으므로(주요한) (4)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6)솥이나 도자기·기와·벽돌 따위를 구워 내는 시설 (8)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 요즘은 주로 화학 섬유로 만든다 (9)명태의 새끼. 허무맹랑한 거짓말 (10)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12)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몹시 교활한 사람 (13)남의 물건을 째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 (14)몸집이 작은 종자의 말. 농부는 ~ 위에 짐을 싣고 들판으로 나갔다 (17)쇠를 끌어담기는 자기를 띤 물체. 자석 (18)냄새를 맡는 감각. 개는 ~이 예민하게 발달한 동물이다 (20)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21)물을 담아 세수를 하거나 세탁을 할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 (22)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은 긴 널빤지

스도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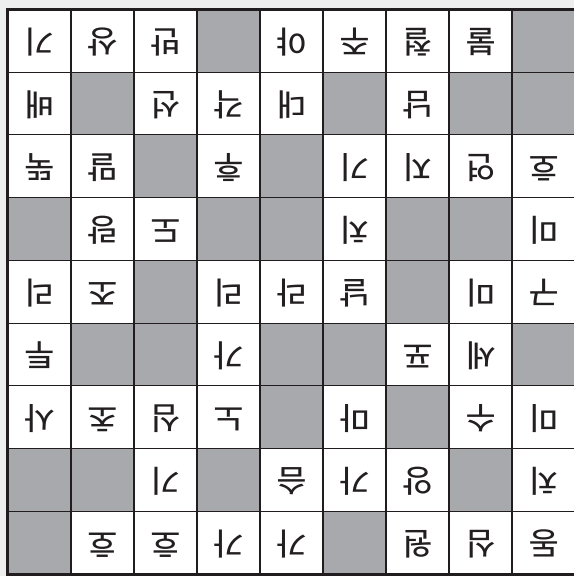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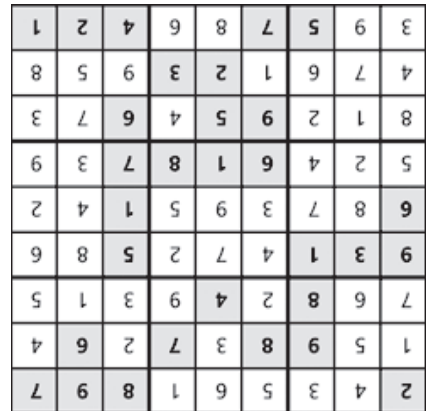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6월 스페셜 Special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날 제품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상강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향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ECO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매트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매트
• 산림욕 효과
• 슬립질질 찜질효과

헤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3중 고온 안전처리
• 6단계 안전 인증 제품
• 7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2,900 \$2,300 \$3,000 \$2,500 본토휴침대 100% 생향토

휴표 휴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에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특정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도, 7가, 7를 채우고 7도를 쏘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닥터 Q**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자극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력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염 등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EYE MASSAGER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감,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129**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몽 매트

2020년 최우수 등급 매트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